2009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대학의 정보기술 활용에 따른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2009. 12.

국가인권위원회

대학의 정보기술 활용에 따른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2009년도 국가인권위원회 <대학의 정보기술활용과 학생인권과의 조화>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9. 12.

연구수행기관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센터
연 구 책 임 자 명재진(충남대학교)
공 동 연 구 원 육소영(충남대학교)
보 조 연 구 원 정상표(충남대학교)

이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 용역비를 지원 받아 수행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요 약 문 】

본 연구는 대학 내의 정보기술 활용의 대표적인 사례인 스마트카드, CCTV, 생체정보기술활용에 관한 20개의 설문을 만들어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 내 정보기술활용이 갖는 인권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찾아보려 한 것이다. 우선 설문 조사군에 속하는 5개의 대학(충남대, 목원대학교, 배재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밭대학교)를 선발하여 인권 침해적 정보시스템의 예를 찾아, 학생들의 의식조사를 통해 그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그 다음에는 최근 등장하고 있는 정보사회와 인권의 이론들을 소개하고, 이를 대학 내의 문제점에 적용해 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해보았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알아본 대학 내의 정보기술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정리하면, 많은 학생들이 스마트카드사용에 대해 그 효용성으로 인해 찬성하는 편이었고,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한 자각은 있으나 대학 내의 반강제적 사용분위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편은 아니었다. 대학 내의 정보기술 활용이 점차 증대되는 편이었고, 최근에는 생체정보인 혈관인식시스템의 활용도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러한 정보기술의 대학 내 도입에 대해서 놀랍게도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생체정보활용에도 반대하는 학생이 적은 편이었다.

설문결과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대학생활의 편리함으로 인해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반대나 비판하는 의견이 적었다. 이러한 대학 내의 정보기술 활용에 대한 인권적 의식부족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하고도 다른 것이어서 흥미롭다. 요즈음 정보사회의 기본권인 자기정보결정권이 대두되면서 학계에서나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정보기술활용의 전제조건으로 준수하도록 요구하는데 반해, 대학 내에서는 이러한 정보인권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염려되는 상황이다. 대학 내에서는 스마트카드발급에 있어서 개인정보 활용의 설명이나 고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개인동의 없이 반강제적으로 학생증과 신용카드기능을 복합화 시킨 스마트카드의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 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 CCTV가 설치되고 있고, 또한 기숙사에서 개인동의 없이 손혈관 인식시스템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설문결과와 관련하여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기술의 활용이 가져오는 정보인권적 주제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침해와 사생활침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내에서 정보기술 활용지침을 제정하기를 요청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활용지침이 전 세계적으로 합의되고 있는 정보인권법의 원칙들을 존중하고, 정보기술활용에 있어 최소한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사생활침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도록 제안한다.

【 목 차 】

Ⅰ. 연구 목적 ····· 1

Ⅱ. 연구 방법 ····· 1

Ⅲ. 연구 내용 ····· 2

1. 설문지 ····· 2
(1)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경우 최대오차 한계 ····· 2
(2) 조사대상 인구 구성(총 300명) ····· 3
2. 스마트카드 ····· 6
(1) 스마트카드의 개념 ····· 6
(2) 스마트카드의 기능 ····· 6
(3) 스마트카드의 발급 절차 ····· 13
(4) 설문 문항별 응답 분포(학교, 성별, 학년에 따른 응답 분포) ····· 14
3. 기타 설문 문항별 응답 분포(학교, 성별, 학년에 따른 응답 분포) ····· 38
(1) 학내 CCTV ····· 38
(2) 생체정보시스템 ····· 44
(3) 지도교수제도 ····· 45
4. 설문지 통계 분석 결과 ····· 47
(1) 스마트카드 ····· 47
(2) 기타 설문 ····· 48

Ⅳ. 일반적 문제점 및 통계조사로 본 스마트카드의 문제점 ····· 48

1. 스마트카드의 일반적 문제점 ····· 48
(1) 두 종류 학생증 발급으로 인한 학생들의 혼돈 ····· 48
(2) 약관 설명과 제시의 부실 ····· 48
(3)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활용 문제점 ····· 49
(4) 사생활침해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 절실 ····· 49
(5) 대학내 조교인력 축소목적의 부당성 ····· 49
2. CCTV의 일반적 문제점 ····· 50
(1)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문제 ····· 50
(2) 인격권침해의 문제 ····· 50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 50
(4) 사생활의 침해 ····· 50
3. 통계 조사로 본 대학 내 스마트카드의 활용 문제점 ····· 51
(1) 개인정보의 집적화 문제 ····· 51
(2) 과소비 조장 ····· 51

(3) 도난 및 범죄 활용 가능성 ····· 51
(4) 위화감 조성 ····· 51
(5) 편리함으로 인한 인권의식의 저하 문제 ····· 52

Ⅴ. 통계조사 결과의 의미 ····· 52

1. 대학 내 미흡한 인권의식 ····· 52
(1) 스마트카드 도입에 호의적 태도 ····· 52
(2) 스마트카드의 인권침해요소에 대한 무관심 ····· 52
(3) 스마트카드 활용의 강제성 ····· 53
2.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몰인식 ····· 53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고지 없이 카드 발급 ····· 53
(2)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무관심 ····· 54
(3) 졸업이후의 개인정보 존속의 문제 ····· 54
3. 사생활침해에 대한 인식 결여 ····· 54
(1) 스마트카드의 사생활정보 집적문제에 대해 무관심 ····· 54
(2) 국가인권위원회의 경고의 간과 ····· 55
4. 소결 ····· 55

Ⅵ. 개인정보보호의 이론적 현황과 인권법적 보호방법 ····· 56

1. 서 ····· 56
2. 정보기본권의 등장과 의의 ····· 56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등장 ····· 57
4. 스마트카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문제 ····· 58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와 내용 ····· 58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인권법적 근거 ····· 59
(3) 대학내 스마트카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위험성 ····· 59

Ⅶ. 대학내 정보기술 활용의 인권법적 문제 ····· 60

1. 스마트카드의 인권법적 문제 ····· 60
(1) 사생활침해의 문제 ····· 60
(2) 정보집적의 인권법적 문제 ····· 60
(3) 대학생들 간의 위화감의 문제 ····· 61
2. CCTV의 인권법적 문제 ····· 61
(1) 범죄예방적 효과의 논란 ····· 61
(2) 대학생들의 인식 ····· 62
(3) 대학내 CCTV설치의 전제조건 ····· 62
3. 지문 등 생체정보 수집의 인권법적 문제 ····· 62
(1) 생체정보의 활용 ····· 62

(2) 기숙사 식당 이용 시 손혈관 인식 시스템사용 ····· 63
(3) 생체정보활용의 문제점과 한계 ····· 63
(4) 대학내 손혈관 시스템 도입의 전제조건 ····· 64

Ⅷ. 대학 내 인권 보호 대안 찾기 - 결론 ····· 64

1. 정보인권에 대한 의식향상 프로그램의 필요성 ····· 64
2. 대학내 정보기술 활용지침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 65
(1) 정보기술 활용지침 제정의 필요성 ····· 65
(2) 외국에서의 정보인권보호의 일반원칙과 지침의 기본방향 ····· 65

【 참 고 자 료 】 ····· 67

Ⅰ. 연구 목적

전자학생증으로 대표되는 대학 내 정보기술 활용은 그 편리함으로 인해 많은 대학에서 도입되고,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학생증은 학내 인권 침해적 요소가 많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 출입이나 강의실 출입에 있어 전자학생증의 요구는 개인의 사생활 노출을 강요하고, 학생을 단지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려는 대학운영자의 행정편의성만 고려한 것이다.

전자학생증 이외에도 지문 등록을 통한 도서관 출입 및 도서대출시스템의 문제점, 학내 전산실 이용에 있어서의 지문인식기 활용 등이 대학인권발전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 전자화폐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문을 등록하고 카드를 발행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어 이에 대학 내 인권무감각 현상이 증대되고 있다.

정보화 기술은 대학 내에 있어서도 학생들 동의 없는 강의 녹음이나 녹화의 문제를 발생 시키고, CCTV의 일상화로 학생들의 학내활동 동선이 촬영되고 있다. 또한 최근 학생과 교수와의 취업증진을 위한 멘토확대 등으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지나친 교수들의 학생 간섭으로 사생활 침해와 이에 대한 정보가 학내 전산망에 그대로 보관되는 등 학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증대일로에 있다.

이러한 대학 내 정보기술 활용을 통한 인권 침해적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법이론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학생의 사생활권과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대학 내 부각시켜 인권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연구를 위해 두 가지 방법론을 혼합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대학 내 정보기술 활용의 실태를 파악하는 방법론과 이에 대한 이론적 평가와 문제점 부각 그리고 대안 제시로 나아가고자 한다.

대학 내 실태조사는 조사군에 속하는 5개 정도의 대학을 선발하여 인권침해적 정보시스템의 예를 찾아, 학생들의 의식조사를 통해 그 문제점을 알아 본다.

둘째, 최근 등장하고 있는 정보사회와 인권의 이론들을 소개하고, 이를 대학내의 문제점에 적용해 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해보도록 한다.

Ⅲ. 연구 내용

대전 소재내 5개 대학교를 조사군 으로 하여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스마트카드를 중심으로 설문을 작성 하여 조사 하였고 기타 설문에 학내 CCTV, 생체정보시스템, 지도교수제도를 포함 하여 조사 · 분석 하였다. 조사군 5개 대학은 충남대학교, 목원대학교, 배재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밭대학교 이며 설문을 통해 각 학교별 스마트카드 기능상의 공통점과 차이점 · 현황 · 학생증에 대한 인식을 파악 한 후 인권침해적 요소를 발견하고, CCTV · 생체정보시스템 · 지도교수제 등의 정보기술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 본다.

1. 설문지

(1)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경우 최대오차 한계

모비율	n=100	n=200	n=300	n=400	n=500	n=600	n=750	n=1000	n=1500
0.1	0.059	0.042	0.034	0.029	0.026	0.024	0.021	0.019	0.015
0.2	0.078	0.055	0.045	0.039	0.035	0.032	0.029	0.025	0.020
0.3	0.090	0.064	0.052	0.045	0.040	0.037	0.033	0.028	0.023
0.4	0.096	0.068	0.055	0.048	0.043	0.039	0.035	0.030	0.025
0.5	0.098	0.069	0.057	0.049	0.044	0.040	0.036	0.031	0.025
0.6	0.096	0.068	0.055	0.048	0.043	0.039	0.035	0.030	0.025
0.7	0.090	0.064	0.052	0.045	0.040	0.037	0.033	0.028	0.023
0.8	0.078	0.055	0.045	0.039	0.035	0.032	0.029	0.025	0.020
0.9	0.059	0.042	0.034	0.029	0.026	0.024	0.021	0.019	0.015

위의 표는 조사한 표본수에 따라 모비율이 0.1 ~ 0.9까지 변하는 동안 오차의 한계가 변하는 정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우 최대 오차한계는 신뢰수준 95%에서 ± 5.7%입니다.

(2) 조사대상 인구 구성(총 300명)

① 설문지 표지 양식

2009년 대전소재 5개 대학

대학내 정보기술 활용과 학생인권문제 조사

「대학생용 설문지」

바쁘신 와중에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대전소재 5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여, 대학생들의 대학내 정보기술 활용과 학생인권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료는 익명이 보장되며 통계적으로 처리될 예정이오니 솔직하고 성의있는 응답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협조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센터

성 별	**☐ 남성 ☐ 여성**
학 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대 학 교	**( ) 대학교**
전공분야	**☐ 인문대학 ( ) 학과** **☐ 사회과학대학 ( ) 학과** **☐ 자연과학대학 ( ) 학과** **☐ 경상대학 ( ) 학과** **☐ 공과대학 ( ) 학과** **☐ 농업생명과학대학 ( ) 학과** **☐ 법과대학 ( ) 학과** **☐ 약학대학 ( ) 학과** **☐ 의과대학 ( ) 학과** **☐ 생활과학대학 ( ) 학과** **☐ 예술대학 ( ) 학과** **☐ 수의과대학 ( ) 학과** **☐ 사범대학 ( ) 학과** **☐ 간호대학 ( ) 학과** **☐ 생명시스템과학대학 ( ) 학과**

② 분포도

			성 별					
			남 자		여 자		합 계	
			빈도	행N%	빈도	행N%	빈도	행N%
대 학	목원대	1학년	6	50.0%	6	50.0%	12	100.0%
		2학년	12	44.4%	15	55.6%	27	100.0%
		3학년	7	46.7%	8	53.3%	15	100.0%
		4학년	3	50.0%	3	50.0%	6	100.0%
		합계	28	46.7%	32	53.3%	60	100.0%
	한발대	1학년	12	50.0%	12	50.0%	24	100.0%
		2학년	10	62.5%	6	37.5%	16	100.0%
		3학년	5	100.0%	0	.0%	5	100.0%
		4학년	9	60.0%	6	40.0%	15	100.0%
		합계	36	60.0%	24	40.0%	60	100.0%
	배재대	1학년	13	54.2%	11	45.8%	24	100.0%
		2학년	10	45.5%	12	54.5%	22	100.0%
		3학년	5	55.6%	4	44.4%	9	100.0%
		4학년	0	.0%	5	100.0%	5	100.0%
		합계	28	46.7%	32	53.3%	60	100.0%
	한남대	1학년	5	55.6%	4	44.4%	9	100.0%
		2학년	14	58.3%	10	41.7%	24	100.0%
		3학년	5	33.3%	10	66.7%	15	100.0%
		4학년	2	16.7%	10	83.3%	12	100.0%
		합계	26	43.3%	34	56.7%	60	100.0%
	충남대	1학년	0	.0%	7	100.0%	7	100.0%
		2학년	3	27.3%	8	72.7%	11	100.0%
		3학년	6	54.5%	5	45.5%	11	100.0%
		4학년	17	54.8%	14	45.2%	31	100.0%
		합계	26	43.3%	34	56.7%	60	100.0%
합 계		1학년	36	47.4%	40	52.6%	76	100.0%
		2학년	49	49.0%	51	51.0%	100	100.0%
		3학년	28	50.9%	27	49.1%	55	100.0%
		4학년	31	44.9%	38	55.1%	69	100.0%
		합계	144	48.0%	156	52.0%	300	100.0%

			대학					전체
			목원대	한발대	배재대	한남대	충남대	
단 과	인문대	빈도	12	9	27	8	7	63
		대학중%	20.0%	15.0%	45.0%	13.3%	11.7%	21.0%
	사과대	빈도	28	0	4	6	6	44
		대학중%	46.7%	.0%	6.7%	10.0%	10.0%	14.7%
	자과대	빈도	1	0	3	3	3	10
		대학중%	1.7%	.0%	5.0%	5.0%	5.0%	3.3%
	경상대	빈도	0	7	7	22	9	45
		대학중%	.0%	11.7%	11.7%	36.7%	15.0%	15.0%
	공대	빈도	5	43	6	12	17	83
		대학중%	8.3%	71.7%	10.0%	20.0%	28.3%	27.7%
	농대	빈도	0	0	0	0	4	4
		대학중%	.0%	.0%	.0%	.0%	6.7%	1.3%
	법대	빈도	1	0	4	1	5	11
		대학중%	1.7%	.0%	6.7%	1.7%	8.3%	3.7%
	의대	빈도	0	0	0	0	1	1
		대학중%	.0%	.0%	.0%	.0%	1.7%	.3%
	생과대	빈도	0	0	1	0	2	3
		대학중%	.0%	.0%	1.7%	.0%	3.3%	1.0%
	예대	빈도	8	1	8	8	0	25
		대학중%	13.3%	1.7%	13.3%	13.3%	.0%	8.3%
	사범대	빈도	5	0	0	0	5	10
		대학중%	8.3%	.0%	.0%	.0%	8.3%	3.3%
	생명시스템	빈도	0	0	0	0	1	1
		대학중%	.0%	.0%	.0%	.0%	1.7%	.3%
전 체		빈도	60	60	60	60	60	300
		대학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스마트카드

(1) 스마트카드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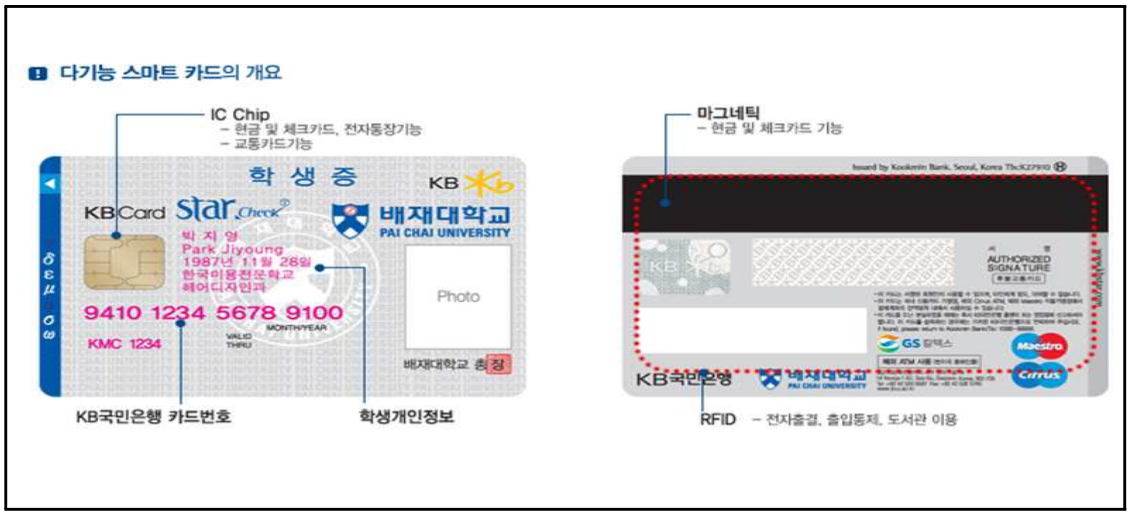
스마트카드란, 카드에 RF칩(Radio Frequence - 무선 주파수) 또는 IC칩(Integrated Circuit - 집적회로)을 내장하여 신분증 외에 학교 및 기능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 서비스 이다. 스마트카드의 주요 기능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대학별 스마트 관련 시스템 설치 현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타난다.

(2) 스마트카드의 기능

① 배재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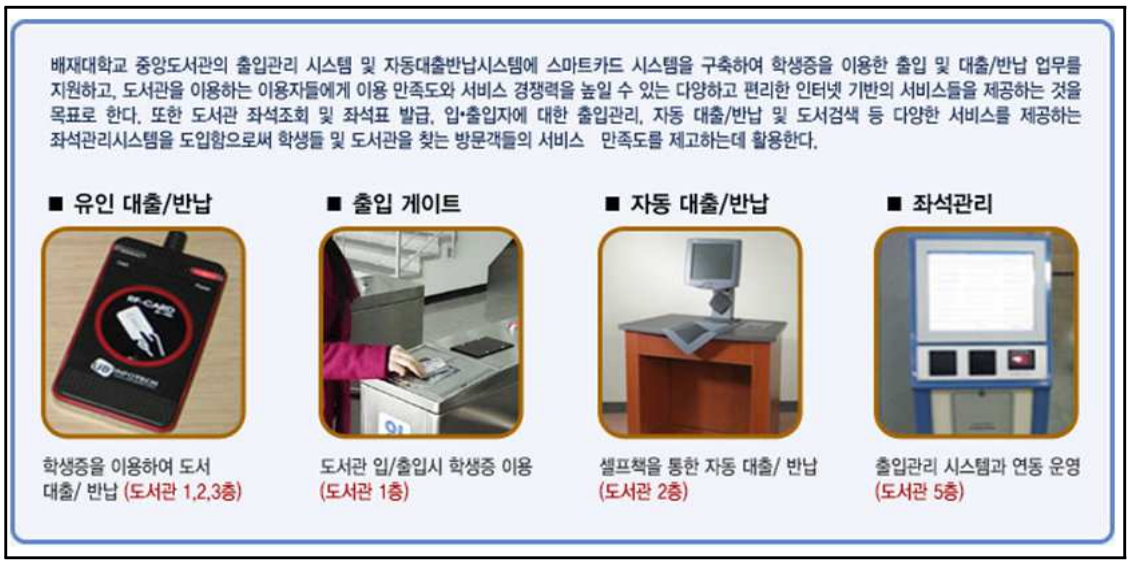
a) 개요

배재대학교는 일반학생증에 IC Chip을 장착하여 다기능스마트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현금 및 체크카드, 전자통장, 교통카드, 전자출결, 출입통제, 도서관 이용 등의 다양한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증 앞면에는 학생 개인정보와 국민은행 카드번호 등이 보여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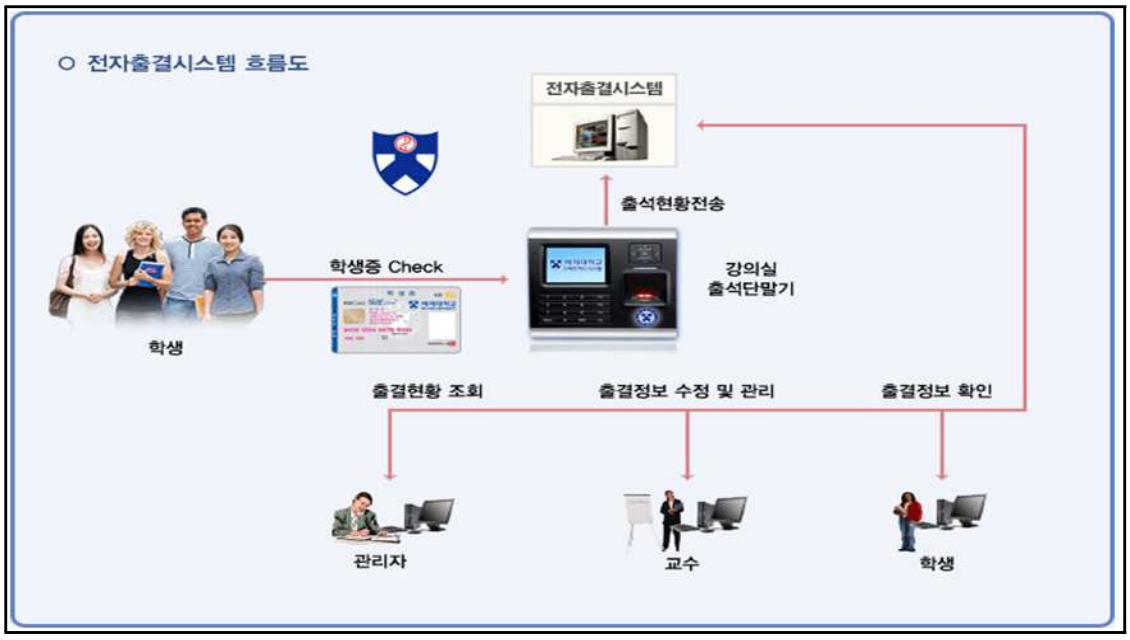
b) 도서관

배재대학교 도서관에서는 학생증을 이용한 도서 대출 및 반납, 입/출입, 출입관리 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영되는 좌석관리 등이 무인시스템으로 이용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 전자출결

스마트카드를 이용하여 전자출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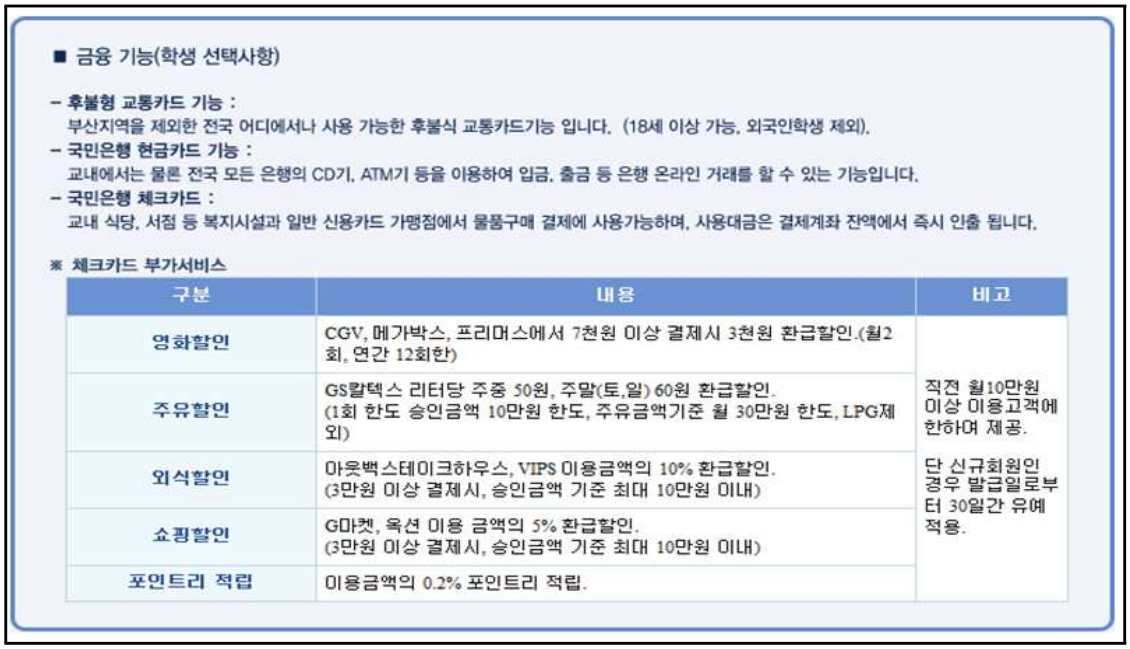


d) 식당

교내 식당의 카드인식 단말기에 스마트카드를 접촉 시킴으로써 체크카드 및 전자화폐, 현금카드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식당이용이 가능하다.

e) 금융

국민은행 체크카드 및 현금카드 기능, 그리고 후불형 교통카드의 기능 등이 있다. 금융 기능은 학생의 선택사항이므로 학생이 원하지 않는다면 금융기능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카드가 아닌 일반학생증의 기능만으로 사용하게 된다.



■ 금융 기능(학생 선택사항)

- 후불형 교통카드 기능 :
  부산지역을 제외한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 후불식 교통카드기능 입니다. (18세 이상 가능, 외국인학생 제외).
- 국민은행 현금카드 기능 :
  교내에서는 물론 전국 모든 은행의 CD기, ATM기 등을 이용하여 입금, 출금 등 은행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국민은행 체크카드 :
  교내 식당, 서점 등 복지시설과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구매 결제에 사용가능하며, 사용대금은 결제계좌 잔액에서 즉시 인출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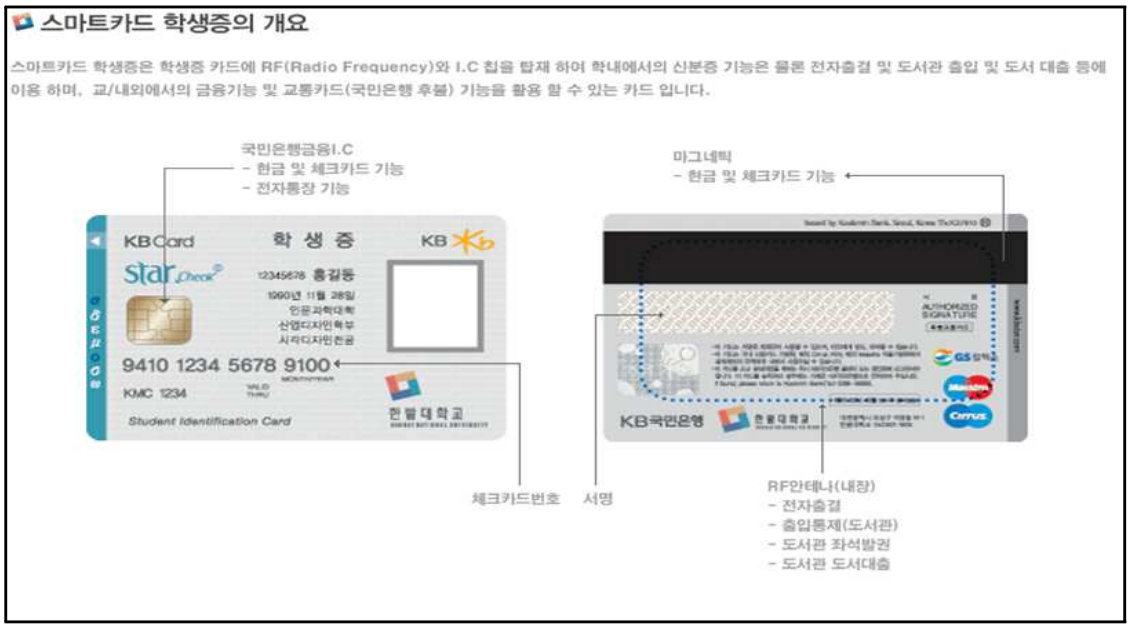
※ 체크카드 부가서비스

구분	내용	비고
영화할인	CGV, 메가박스, 프리머스에서 7천원 이상 결제시 3천원 환급할인.(월2회, 연간 12회한)	직전 월10만원 이상 이용고객에 한하여 제공. 단 신규회원인 경우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유예 적용.
주유할인	GS칼텍스 리터당 주중 50원, 주말(토,일) 60원 환급할인. (1회 한도 승인금액 10만원 한도, 주유금액기준 월 30만원 한도, LPG제외)	
외식할인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VIPS 이용금액의 10% 환급할인. (3만원 이상 결제시, 승인금액 기준 최대 10만원 이내)	
쇼핑할인	G마켓, 옥션 이용 금액의 5% 환급할인. (3만원 이상 결제시, 승인금액 기준 최대 10만원 이내)	
포인트리 적립	이용금액의 0.2% 포인트리 적립.	

② 한밭대학교

a)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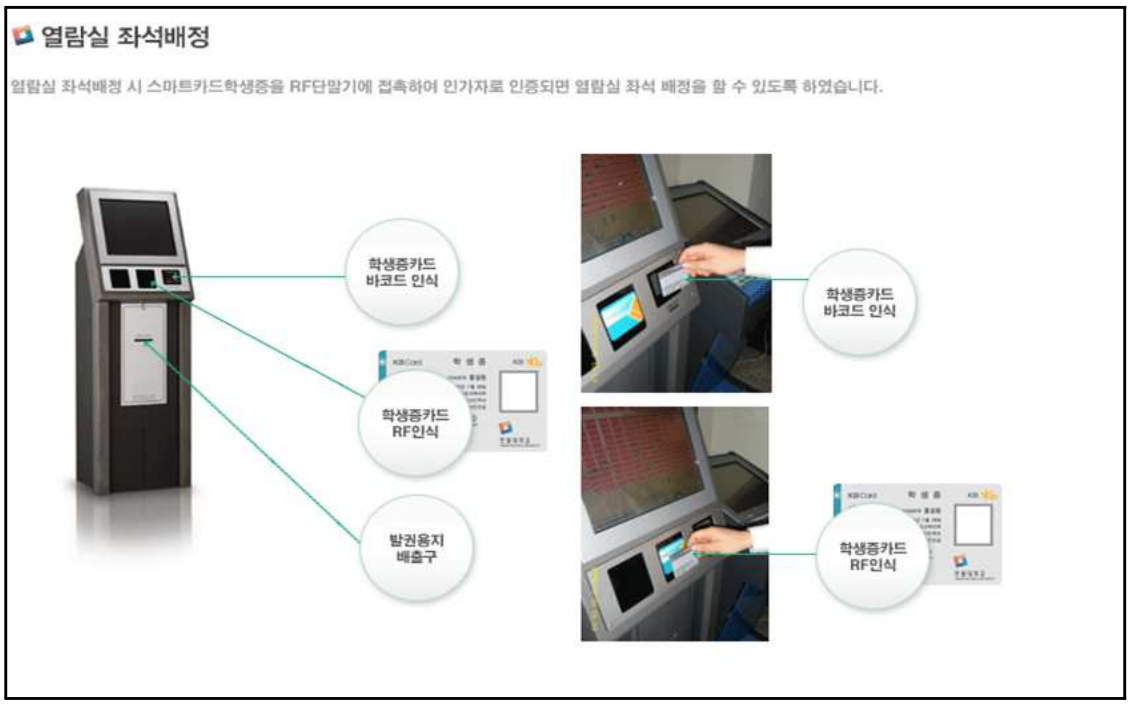
한밭대학교의 스마트카드 역시 배재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일반학생증에 국민은행금융I.C 를 부착하여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b) 도서관

c) 도서대출

d) 열람실 좌석 배정



e) 전자출결

전자출결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적으로 출석체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교수 및 강사가 일일이 출석체크를 하지 않음으로써 강의시간을 보다 더 확보하여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고자 도입하였다. 교수 및 강사는 디스플레이에 저장된 정보를 통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의 출석현황을 체크할 수 있다.

f) 금융

금융 기능은 위에서 제시한 배재대학교와 그 기능이 동일하다.

③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는 현재 모든 학생이 대부분 국제학생증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학생증에 RF칩 또는 IC칩을 부착하여 스마트카드의 기능을 이용하고 있다. 대학 별 시스템설치기기의 종류나 설치현황에 따라 기능의 차이가 있을 뿐 스마트카드의 주 기능은 위에서 기술한 배재대학교나 한밭대학교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단, 현재 충남대학교는 현금카드와 식당, 매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기능이 있을 뿐 체크카드 기능은 없는 상태이다. 즉, 충남대학교의 기능은, 디지털 사진

학생증, 전자 출결, 전자화폐(식당, 매점), 출입통제(각 단과대), 도서대출관리, 국제학생증 기능(학생항공권, 교통패스, 국제전화카드, 유학생 보험, 환전우대 서비스, 세계 숙소 예약 서비스 등 혜택), 대전시교통카드 등이 있다.

a) 충남대학교 스마트카드

국제학생증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번 및 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④ 목원대학교, 한남대학교

목원대학교와 한남대학교는 스마트카드를 현재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추진중에 있다. 따라서 그 기능은 스마트카드의 기능이 아닌 일반학생증의 기능인 신분증이나 도서관이용 등이 전부이다. 국제학생증은 신청자에 한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학생증 기능도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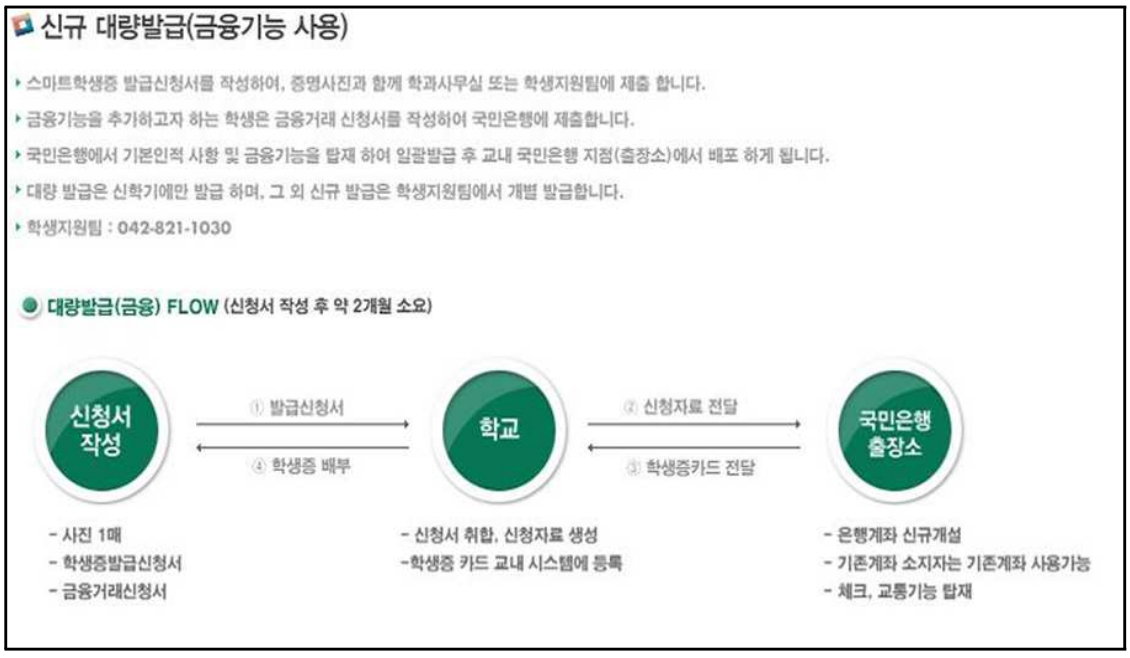
a) 목원대학교와 한남대학교 국제학생증

⑤ 각 대학교별 학생증 기능 비교

	신분증	무인도서 대출 및 반납	도서관 좌석배정	출입통제	전자출결	교통카드	국제학생증 (신청)	현금카드, 전자화폐 (신청)	체크카드 (신청)
충남대	O	O	O	O	O	O	O	O	X
배재대	O	O	O	O	O	O	O	O	O
한밭대	O	O	O	O	O	O	O	O	O
목원대	O	X	X	X	X	X	O	X	X
한남대	O	X	X	X	X	X	O	X	X

(3) 스마트카드의 발급 절차

스마트카드를 신청할 당시 금융기능은 선택사항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금융기능의 신청이 있을시에만 스마트카드의 다양한 기능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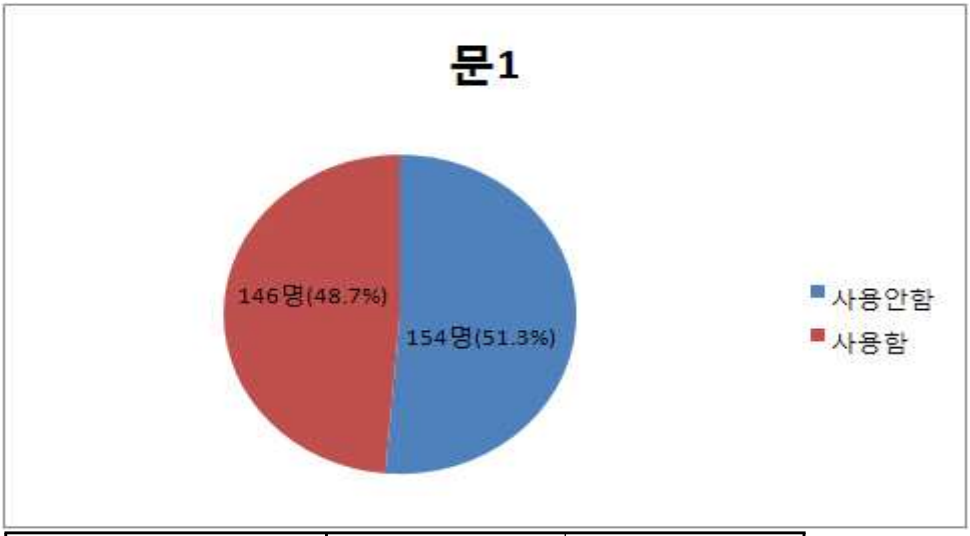


(4) 설문 문항별 응답 분포(학교, 성별, 학년에 따른 응답 분포)

문1. 스마트카드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1) 아니다 (1-1번으로)

2) 그렇다 (1-2번으로)



문1	빈도	퍼센트
사용안함	154	51.3
사용함	146	48.7
합계	3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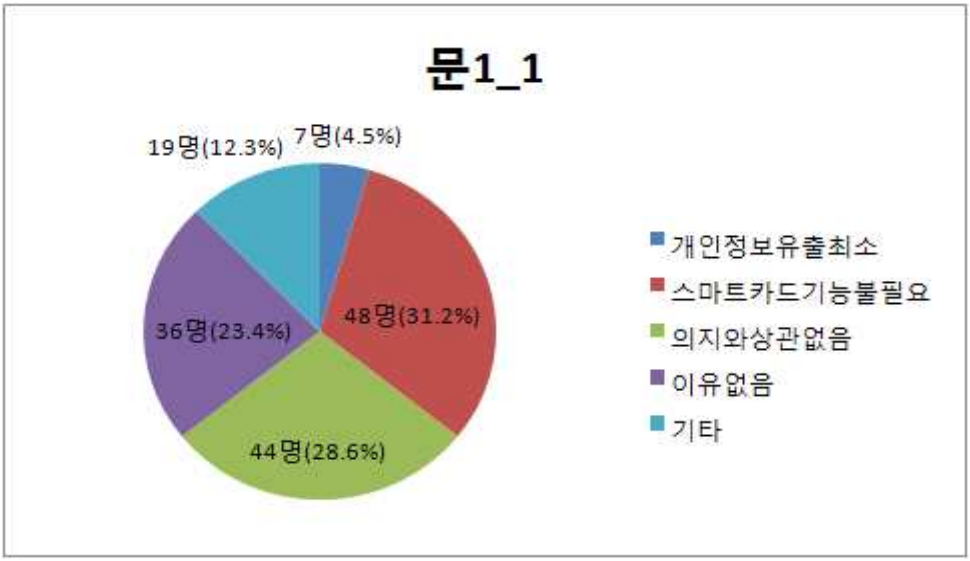
문1	대학					전체
	목원대	한밭대	배재대	한남대	충남대	
사용안함	38 63.3%	31 51.7%	28 46.7%	49 81.7%	8 13.3%	154 51.3%
사용함	22 36.7%	29 48.3%	32 53.3%	11 18.3%	52 86.7%	146 48.7%
전체	60 100.0%	60 100.0%	60 100.0%	60 100.0%	60 100.0%	300 100.0%

문1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사용안함	76 52.8%	78 50.0%	154 51.3%
사용함	68 47.2%	78 50.0%	146 48.7%
전체	144 100.0%	156 100.0%	300 100.0%

문1	학년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사용안함	41 53.9%	54 54.0%	29 52.7%	30 43.5%	154 51.3%
사용함	35 46.1%	46 46.0%	26 47.3%	39 56.5%	146 48.7%
전체	76 100.0%	100 100.0%	55 100.0%	69 100.0%	300 100.0%

문1-1. (일반학생증 사용자 설문) 일반학생증을 사용하고 있다면 왜 일반학생증을 사용하십니까?

1)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2) 스마트카드의 기능이 필요가 없어서
3)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4) 이유 없음
5) 기타



문1_1	빈도	퍼센트
개인정보유출최소	7	4.5
스마트카드기능불필요	48	31.2
의지와상관없음	44	28.6
이유없음	36	23.4
기타	19	12.3
합계	15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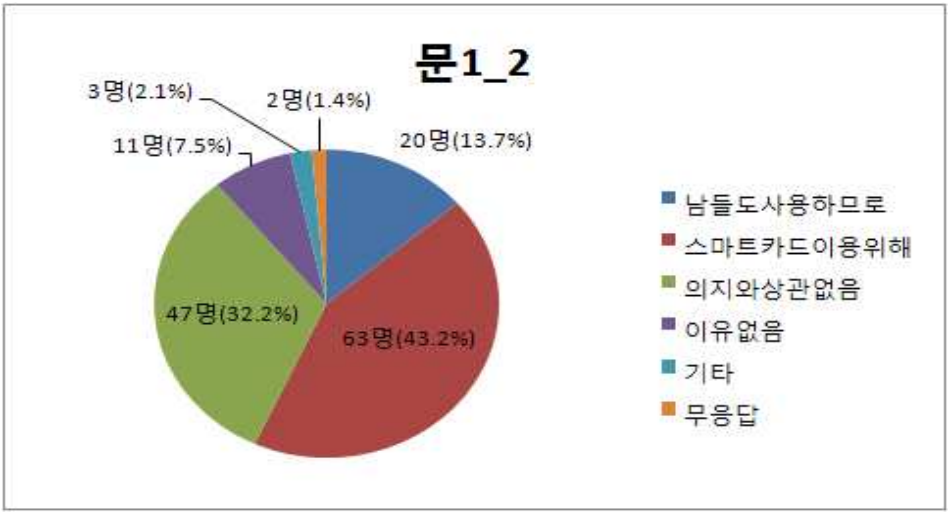
문1_1	대학					전체
	목원대	한발대	배재대	한남대	충남대	
개인정보 유출최소	3 7.9%	0 .0%	3 10.7%	1 2.0%	0 .0%	7 4.5%
스마트카드기능 불필요	3 7.9%	16 51.6%	17 60.7%	10 20.4%	2 25.0%	48 31.2%
의지와상관없음	16 42.1%	7 22.6%	1 3.6%	18 36.7%	2 25.0%	44 28.6%
이유없음	7 18.4%	5 16.1%	5 17.9%	16 32.7%	3 37.5%	36 23.4%
기타	9 23.7%	3 9.7%	2 7.1%	4 8.2%	1 12.5%	19 12.3%
전체	38 100.0%	31 100.0%	28 100.0%	49 100.0%	8 100.0%	154 100.0%

문1_1	성별		전체
	남자	여자	
개인정보 유출최소	3 3.9%	4 5.1%	7 4.5%
스마트카드기능 불필요	26 34.2%	22 28.2%	48 31.2%
의지와상관없음	18 23.7%	26 33.3%	44 28.6%
이유없음	22 28.9%	14 17.9%	36 23.4%
기타	7 9.2%	12 15.4%	19 12.3%
전체	76 100.0%	78 100.0%	154 100.0%

문1_1	학년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개인정보 유출최소	1 2.4%	3 5.6%	1 3.4%	2 6.7%	7 4.5%
스마트카드 기능불필요	18 43.9%	13 24.1%	7 24.1%	10 33.3%	48 31.2%
의지와 상관없음	10 24.4%	16 29.6%	12 41.4%	6 20.0%	44 28.6%
이유없음	7 17.1%	14 25.9%	6 20.7%	9 30.0%	36 23.4%
기타	5 12.2%	8 14.8%	3 10.3%	3 10.0%	19 12.3%
전체	41 100.0%	54 100.0%	29 100.0%	30 100.0%	154 100.0%

문1-2. (스마트카드 학생증 사용자 설문) 스마트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왜 스마트카드기능의 학생증을 사용하십니까?

1) 남들도 다 스마트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2) 스마트카드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3)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4) 이유 없음
5) 기타



문1_2	빈도	퍼센트
남들도사용하므로	20	13.7
스마트카드이용위해	63	43.2
의지와상관없음	47	32.2
이유없음	11	7.5
기타	3	2.1
무응답	2	1.4
합계	14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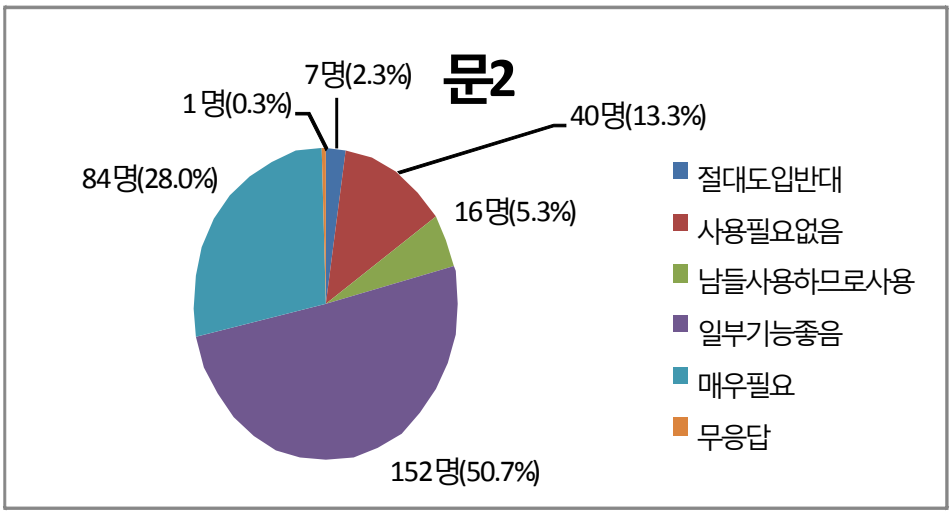
문1_2	대학					전체
	목원대	한발대	배재대	한남대	충남대	
남들도 사용하므로	3 13.6%	4 13.8%	5 15.6%	2 22.2%	6 11.5%	20 13.9%
스마트카드이용	14 63.6%	11 37.9%	14 43.8%	5 55.6%	19 36.5%	63 43.8%
의지와상관없음	5 22.7%	8 27.6%	12 37.5%	1 11.1%	21 40.4%	47 32.6%
이유없음	0 .0%	4 13.8%	0 .0%	1 11.1%	6 11.5%	11 7.6%
기타	0 .0%	2 6.9%	1 3.1%	0 .0%	0 .0%	3 2.1%
전체	22 100.0%	29 100.0%	32 100.0%	9 100.0%	52 100.0%	144 100.0%

문1_2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남들도 사용하므로	9 13.4%	11 14.3%	20 13.9%
스마트카드 이용위해	33 49.3%	30 39.0%	63 43.8%
의지와 상관없음	17 25.4%	30 39.0%	47 32.6%
이유없음	6 9.0%	5 6.5%	11 7.6%
기타	2 3.0%	1 1.3%	3 2.1%
전체	67 100.0%	77 100.0%	144 100.0%

문1_2	학년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남들도 사용하므로	5 14.3%	7 15.9%	3 11.5%	5 12.8%	20 13.9%
스마트카드 이용위해	20 57.1%	18 40.9%	8 30.8%	17 43.6%	63 43.8%
의지와 상관없음	9 25.7%	16 36.4%	9 34.6%	13 33.3%	47 32.6%
이유없음	1 2.9%	2 4.5%	4 15.4%	4 10.3%	11 7.6%
기타	0 .0%	1 2.3%	2 7.7%	0 .0%	3 2.1%
전체	35 100.0%	44 100.0%	26 100.0%	39 100.0%	144 100.0%

문2. 최근 대학교 마다 일반학생증이 점차 사라지고 스마트카드가 도입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마트카드의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효율적이므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일부 기능적인 면에서 좋다고 생각한다
3) 남들이 다 사용하므로 사용한다
4)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5) 인권 침해적 요소가 많으므로 도입되지 말아야 한다



문2	빈도	퍼센트
절대도입반대	7	2.3
사용필요없음	40	13.3
남들사용하므로사용	16	5.3
일부기능좋음	152	50.7
매우필요	84	28.0
무응답	1	.3
합계	3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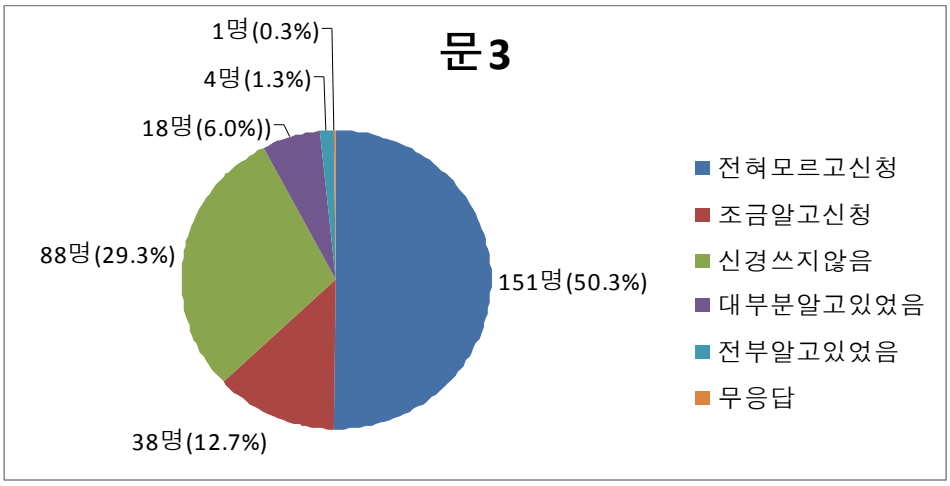
문2	대학					전체
	목원대	한발대	배재대	한남대	충남대	
절대도입반대	2 3.4%	2 3.3%	2 3.3%	1 1.7%	0 .0%	7 2.3%
사용필요없음	9 15.3%	14 23.3%	5 8.3%	10 16.7%	2 3.3%	40 13.4%
남들사용하므로	8 13.6%	1 1.7%	6 10.0%	0 .0%	1 1.7%	16 5.4%
일부기능좋음	26 44.1%	32 53.3%	35 58.3%	27 45.0%	32 53.3%	152 50.8%
매우필요	14 23.7%	11 18.3%	12 20.0%	22 36.7%	25 41.7%	84 28.1%
전체	59 100.0%	60 100.0%	60 100.0%	60 100.0%	60 100.0%	299 100.0%

문2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절대도입반대	6 4.2%	1 .6%	7 2.3%
사용필요없음	17 11.9%	23 14.7%	40 13.4%
남들사용 하므로사용	9 6.3%	7 4.5%	16 5.4%
일부기능좋음	72 50.3%	80 51.3%	152 50.8%
매우필요	39 27.3%	45 28.8%	84 28.1%
전체	143 100.0%	156 100.0%	299 100.0%

문2	학년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절대도입반대	2 2.6%	3 3.0%	1 1.9%	1 1.4%	7 2.3%
사용필요없음	14 18.4%	13 13.0%	9 16.7%	4 5.8%	40 13.4%
남들사용 하므로사용	2 2.6%	6 6.0%	6 11.1%	2 2.9%	16 5.4%
일부기능좋음	37 48.7%	53 53.0%	26 48.1%	36 52.2%	152 50.8%
매우필요	21 27.6%	25 25.0%	12 22.2%	26 37.7%	84 28.1%
전체	76 100.0%	100 100.0%	54 100.0%	69 100.0%	299 100.0%

문3. 스마트카드를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까?

1) 전혀 모르고 신청했다
2) 조금은 알고 신청했다
3) 신경 쓰지 않았다
4) 대부분 알고 있었다
5) 스마트카드의 기능과 거기에 사용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전부 알고 있었다



문3	빈도	퍼센트
전혀모르고신청	151	50.3
조금알고신청	38	12.7
신경쓰지않음	88	29.3
대부분알고있었음	18	6.0
전부알고있었음	4	1.3
무응답	1	.3
합계	3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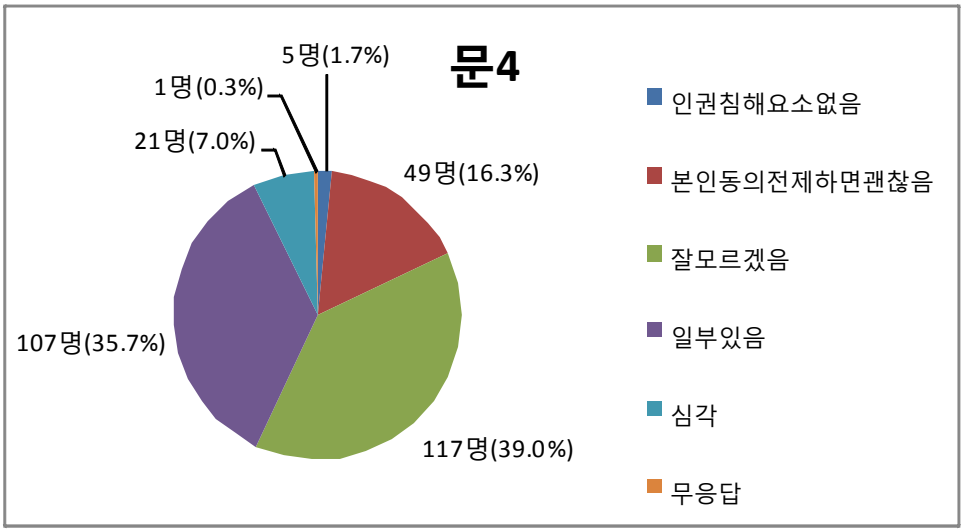
문3	대학					전체
	목원대	한밭대	배재대	한남대	충남대	
전혀모르고신청	27 45.8%	32 53.3%	30 50.0%	25 41.7%	37 61.7%	151 50.5%
조금알고신청	15 25.4%	4 6.7%	8 13.3%	7 11.7%	4 6.7%	38 12.7%
신경쓰지않음	15 25.4%	18 30.0%	16 26.7%	21 35.0%	18 30.0%	88 29.4%
대부분알고 있었음	1 1.7%	6 10.0%	5 8.3%	6 10.0%	0 .0%	18 6.0%
전부알고있었음	1 1.7%	0 .0%	1 1.7%	1 1.7%	1 1.7%	4 1.3%
전체	59 100.0%	60 100.0%	60 100.0%	60 100.0%	60 100.0%	299 100.0%

문3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전혀모르고 신청	67 46.9%	84 53.8%	151 50.5%
조금알고신청	18 12.6%	20 12.8%	38 12.7%
신경쓰지않음	44 30.8%	44 28.2%	88 29.4%
대부분알고 있었음	10 7.0%	8 5.1%	18 6.0%
전부알고 있었음	4 2.8%	0 .0%	4 1.3%
전체	143 100.0%	156 100.0%	299 100.0%

문3	학년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혀모르고 신청	31 40.8%	53 53.0%	28 51.9%	39 56.5%	151 50.5%
조금알고신청	6 7.9%	14 14.0%	8 14.8%	10 14.5%	38 12.7%
신경쓰지않음	30 39.5%	27 27.0%	15 27.8%	16 23.2%	88 29.4%
대부분 알고있었음	8 10.5%	4 4.0%	2 3.7%	4 5.8%	18 6.0%
전부 알고있었음	1 1.3%	2 2.0%	1 1.9%	0 .0%	4 1.3%
전체	76 100.0%	100 100.0%	54 100.0%	69 100.0%	299 100.0%

문4. 스마트카드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금융기관에 일괄적으로 개인정보를 맡기는 등 인권침해적요소가 심하다고 생각 한다
2) 일부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본다
3) 잘 모르겠다
4) 본인의 동의와 비밀유지를 전제로 한다면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다고 생각 한다
5) 효율적이고 편리하므로 인권 침해적이지 않다



문4	빈도	퍼센트
인권침해요소없음	5	1.7
본인동의전제하면괜찮음	49	16.3
잘모르겠음	117	39.0
일부있음	107	35.7
심각	21	7.0
무응답	1	.3
합계	3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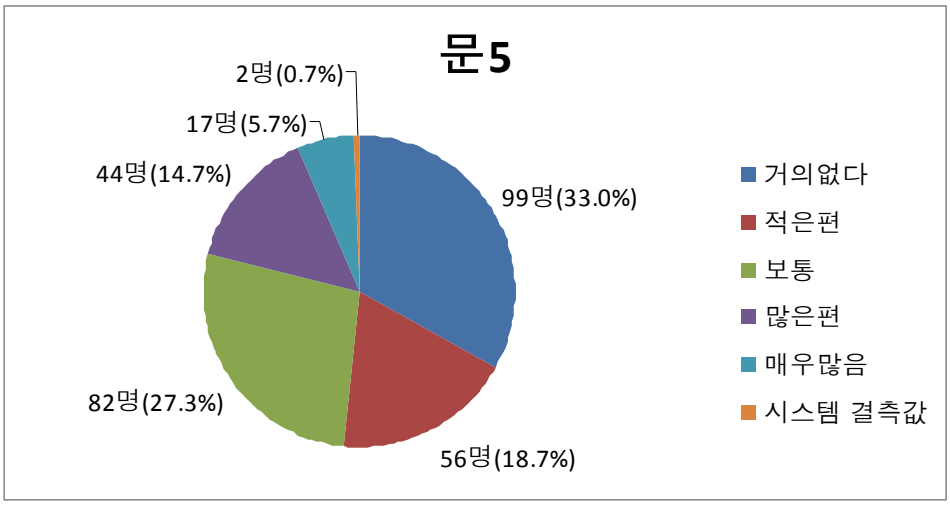
문4	대학					전체
	목원대	한발대	배재대	한남대	충남대	
인권침해요소 없음	3 5.1%	0 .0%	1 1.7%	1 1.7%	0 .0%	5 1.7%
본인동의 전제하면괜찮음	10 16.9%	9 15.0%	6 10.0%	15 25.0%	9 15.0%	49 16.4%
잘모르겠음	17 28.8%	30 50.0%	26 43.3%	17 28.3%	27 45.0%	117 39.1%
일부있음	26 44.1%	18 30.0%	22 36.7%	20 33.3%	21 35.0%	107 35.8%
심각	3 5.1%	3 5.0%	5 8.3%	7 11.7%	3 5.0%	21 7.0%
전체	59 100.0%	60 100.0%	60 100.0%	60 100.0%	60 100.0%	299 100.0%

문4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인권침해 요소없음	4 2.8%	1 .6%	5 1.7%
본인동의전제 하면괜찮음	27 18.9%	22 14.1%	49 16.4%
잘모르겠음	55 38.5%	62 39.7%	117 39.1%
일부있음	43 30.1%	64 41.0%	107 35.8%
심각	14 9.8%	7 4.5%	21 7.0%
전체	143 100.0%	156 100.0%	299 100.0%

문4	학년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인권침해 요소없음	0 .0%	2 2.0%	1 1.9%	2 2.9%	5 1.7%
본인동의전제 하면괜찮음	13 17.1%	19 19.0%	10 18.5%	7 10.1%	49 16.4%
잘모르겠음	34 44.7%	39 39.0%	17 31.5%	27 39.1%	117 39.1%
일부있음	24 31.6%	34 34.0%	20 37.0%	29 42.0%	107 35.8%
심각	5 6.6%	6 6.0%	6 11.1%	4 5.8%	21 7.0%
전체	76 100.0%	100 100.0%	54 100.0%	69 100.0%	299 100.0%

문5. 스마트카드의 사용빈도는 어느정도이십니까?

1) 거의 없다
2) 적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많은 편이다
5) 매우 많다



문5	빈도	퍼센트
거의없다	99	33.0
적은편	56	18.7
보통	82	27.3
많은편	44	14.7
매우많음	17	5.7
무응답	2	.7
합계	3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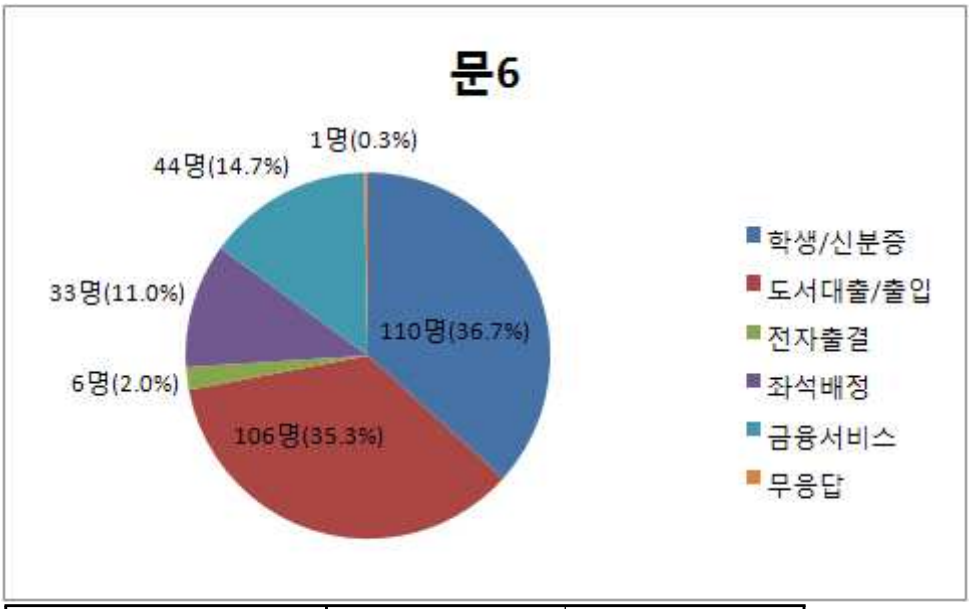
문5	대학					전체
	목원대	한발대	배재대	한남대	충남대	
거의없다	24 41.4%	17 28.3%	21 35.0%	28 46.7%	9 15.0%	99 33.2%
적은편	14 24.1%	17 28.3%	7 11.7%	10 16.7%	8 13.3%	56 18.8%
보통	13 22.4%	12 20.0%	17 28.3%	13 21.7%	27 45.0%	82 27.5%
많은편	4 6.9%	10 16.7%	10 16.7%	7 11.7%	13 21.7%	44 14.8%
매우많음	3 5.2%	4 6.7%	5 8.3%	2 3.3%	3 5.0%	17 5.7%
전체	58 100.0%	60 100.0%	60 100.0%	60 100.0%	60 100.0%	298 100.0%

문5	성별		전체
	남자	여자	
거의없다	42 29.6%	57 36.5%	99 33.2%
적은편	35 24.6%	21 13.5%	56 18.8%
보통	40 28.2%	42 26.9%	82 27.5%
많은편	16 11.3%	28 17.9%	44 14.8%
매우많음	9 6.3%	8 5.1%	17 5.7%
전체	142 100.0%	156 100.0%	298 100.0%

문5	학년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거의없다	23 30.3%	39 39.4%	22 40.7%	15 21.7%	99 33.2%
적은편	12 15.8%	16 16.2%	12 22.2%	16 23.2%	56 18.8%
보통	23 30.3%	24 24.2%	12 22.2%	23 33.3%	82 27.5%
많은편	13 17.1%	15 15.2%	4 7.4%	12 17.4%	44 14.8%
매우많음	5 6.6%	5 5.1%	4 7.4%	3 4.3%	17 5.7%
전체	76 100.0%	99 100.0%	54 100.0%	69 100.0%	298 100.0%

문6. 스마트카드(다기능카드 학생증)의 기능 중 주로 이용 하는 기능은 무엇 입니까?

1) 학생증/신분증
2) 도서 대출 반납 및 도서관 출입
3) 전자 출결
4) 열람실 좌석배정
5) 금융서비스(현금, 체크카드, 교통기능)



문6	빈도	퍼센트
학생/신분증	110	36.7
도서대출/출입	106	35.3
전자출결	6	2.0
좌석배정	33	11.0
금융서비스	44	14.7
무응답	1	.3
합계	3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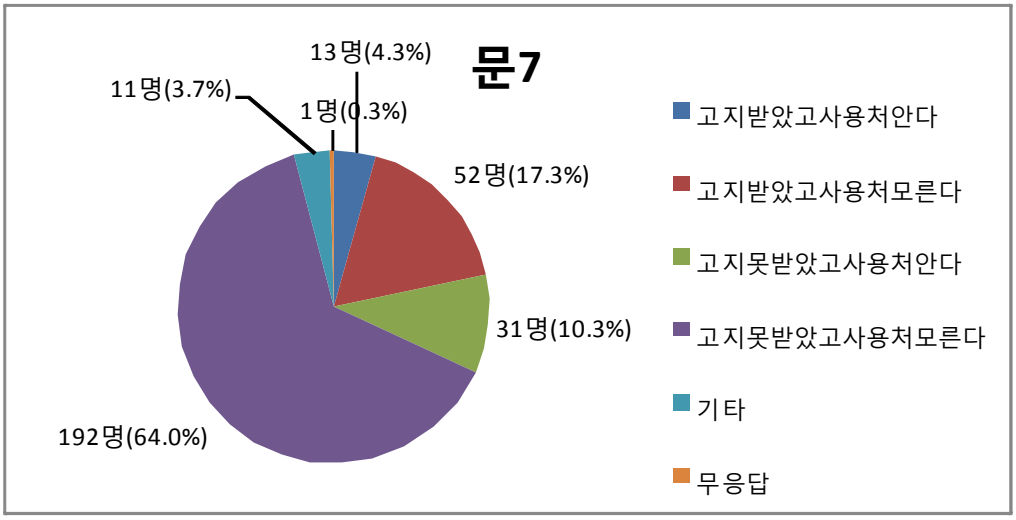
문6	대학					전체
	목원대	한밭대	배재대	한남대	충남대	
학생/신분증	14 23.7%	24 40.0%	32 53.3%	19 31.7%	21 35.0%	110 36.8%
도서대출/ 출입	25 42.4%	22 36.7%	16 26.7%	22 36.7%	21 35.0%	106 35.5%
전자출결	0 .0%	0 .0%	2 3.3%	4 6.7%	0 .0%	6 2.0%
좌석배정	12 20.3%	3 5.0%	1 1.7%	9 15.0%	8 13.3%	33 11.0%
금융서비스	8 13.6%	11 18.3%	9 15.0%	6 10.0%	10 16.7%	44 14.7%
전체	59 100.0%	60 100.0%	60 100.0%	60 100.0%	60 100.0%	299 100.0%

문6	성별		전체
	남자	여자	
학생/신분증	60 42.0%	50 32.1%	110 36.8%
도서대출/ 출입	44 30.8%	62 39.7%	106 35.5%
전자출결	2 1.4%	4 2.6%	6 2.0%
좌석배정	19 13.3%	14 9.0%	33 11.0%
금융서비스	18 12.6%	26 16.7%	44 14.7%
전체	143 100.0%	156 100.0%	299 100.0%

문6	학년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학생/신분증	35 46.1%	32 32.3%	20 36.4%	23 33.3%	110 36.8%
도서대출/ 출입	19 25.0%	43 43.4%	19 34.5%	25 36.2%	106 35.5%
전자출결	0 .0%	6 6.1%	0 .0%	0 .0%	6 2.0%
좌석배정	6 7.9%	9 9.1%	9 16.4%	9 13.0%	33 11.0%
금융서비스	16 21.1%	9 9.1%	7 12.7%	12 17.4%	44 14.7%
전체	76 100.0%	99 100.0%	55 100.0%	69 100.0%	299 100.0%

문7. 학생증의 발급신청시 개인정보보호에관한 절차를 정확하게 고지 받고, 개인정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 정확히 고지 받았고 개인정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잘 알고 있다
2) 정확히 고지 받았으나 개인정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잘 모른다
3) 정확히 고지 받지 못했으나 개인정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잘 알고 있다
4) 정확히 고지 받지 못했고 개인정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잘 모른다
5) 기타



문7	빈도	퍼센트
고지받았고사용처안다	13	4.3
고지받았고사용처모른다	52	17.3
고지못받았고사용처안다	31	10.3
고지못받았고사용처모른다	192	64.0
기타	11	3.7
무응답	1	.3
합계	3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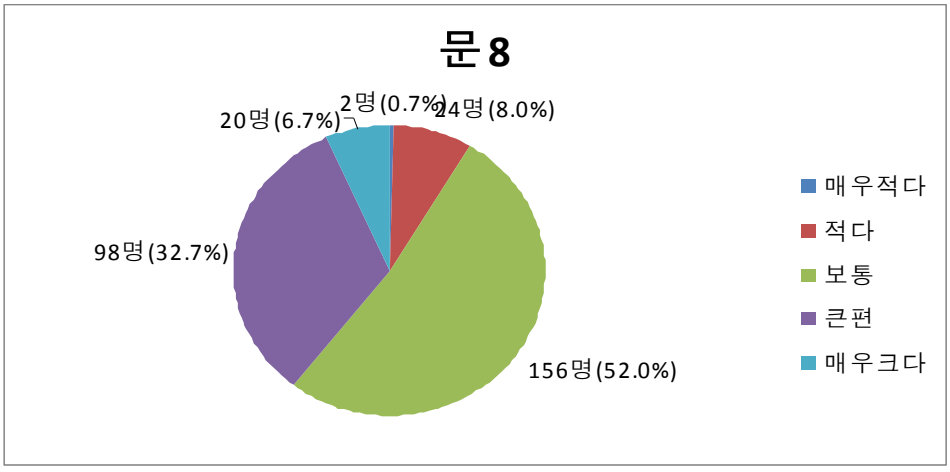
문7	대학					전체
	목원대	한밭대	배재대	한남대	충남대	
고지받았고 사용처안다	3 5.1%	2 3.3%	4 6.7%	3 5.0%	1 1.7%	13 4.3%
고지받았고 사용처모른다	9 15.3%	7 11.7%	14 23.3%	13 21.7%	9 15.0%	52 17.4%
고지못받았고 사용처안다	11 18.6%	6 10.0%	6 10.0%	7 11.7%	1 1.7%	31 10.4%
고지못받았고 사용처모른다	33 55.9%	45 75.0%	35 58.3%	32 53.3%	47 78.3%	192 64.2%
기타	3 5.1%	0 .0%	1 1.7%	5 8.3%	2 3.3%	11 3.7%
전체	59 100.0%	60 100.0%	60 100.0%	60 100.0%	60 100.0%	299 100.0%

문7	성별		전체
	남자	여자	
고지받았고 사용처안다	9 6.3%	4 2.6%	13 4.3%
고지받았고 사용처모른다	28 19.6%	24 15.4%	52 17.4%
고지못받았고 사용처안다	22 15.4%	9 5.8%	31 10.4%
고지못받았고 사용처모른다	76 53.1%	116 74.4%	192 64.2%
기타	8 5.6%	3 1.9%	11 3.7%
전체	143 100.0%	156 100.0%	299 100.0%

문7	학년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고지받았고 사용처안다	5 6.6%	5 5.1%	2 3.6%	1 1.4%	13 4.3%
고지받았고 사용처모른다	14 18.4%	17 17.2%	12 21.8%	9 13.0%	52 17.4%
고지못받았고 사용처안다	10 13.2%	9 9.1%	5 9.1%	7 10.1%	31 10.4%
고지못받았고 사용처모른다	46 60.5%	62 62.6%	35 63.6%	49 71.0%	192 64.2%
기타	1 1.3%	6 6.1%	1 1.8%	3 4.3%	11 3.7%
전체	76 100.0%	99 100.0%	55 100.0%	69 100.0%	299 100.0%

문8. 현재 사용되는 스마트카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크다
2)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큰 편이다
3)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보통이다
4)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적다
5)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적다



문8	빈도	퍼센트
매우적다	2	.7
적다	24	8.0
보통	156	52.0
큰편	98	32.7
매우크다	20	6.7
합계	3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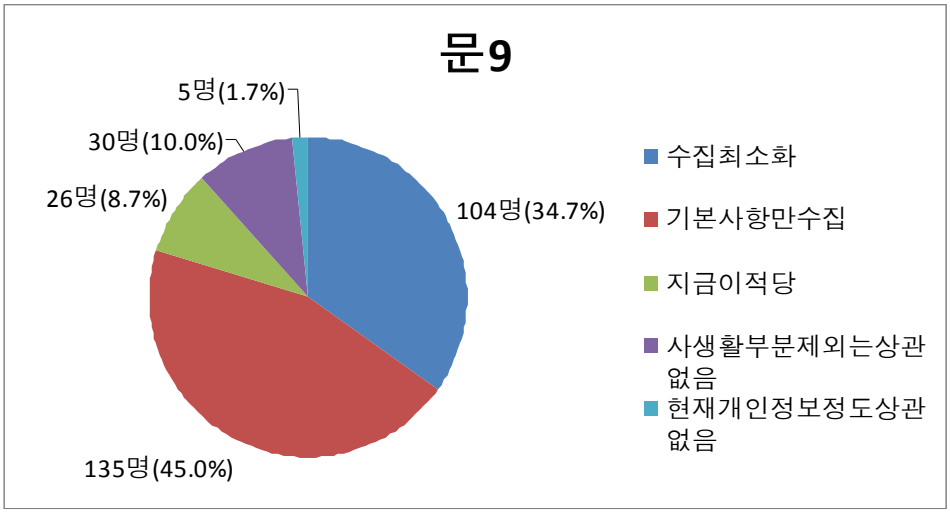
문8	대학					전체
	목원대	한발대	배재대	한남대	충남대	
매우적다	1 1.7%	1 1.7%	0 .0%	0 .0%	0 .0%	2 .7%
적다	6 10.0%	6 10.0%	6 10.0%	0 .0%	6 10.0%	24 8.0%
보통	22 36.7%	33 55.0%	34 56.7%	31 51.7%	36 60.0%	156 52.0%
큰편	24 40.0%	18 30.0%	13 21.7%	25 41.7%	18 30.0%	98 32.7%
매우크다	7 11.7%	2 3.3%	7 11.7%	4 6.7%	0 .0%	20 6.7%
전체	60 100.0%	60 100.0%	60 100.0%	60 100.0%	60 100.0%	300 100.0%

문8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매우적다	1 .7%	1 .6%	2 .7%
적다	12 8.3%	12 7.7%	24 8.0%
보통	69 47.9%	87 55.8%	156 52.0%
큰편	53 36.8%	45 28.8%	98 32.7%
매우크다	9 6.3%	11 7.1%	20 6.7%
전체	144 100.0%	156 100.0%	300 100.0%

문8	학년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매우적다	0 .0%	1 1.0%	0 .0%	1 1.4%	2 .7%
적다	11 14.5%	7 7.0%	1 1.8%	5 7.2%	24 8.0%
보통	40 52.6%	51 51.0%	29 52.7%	36 52.2%	156 52.0%
큰편	16 21.1%	36 36.0%	22 40.0%	24 34.8%	98 32.7%
매우크다	9 11.8%	5 5.0%	3 5.5%	3 4.3%	20 6.7%
전체	76 100.0%	100 100.0%	55 100.0%	69 100.0%	300 100.0%

문9. 현재 각 대학마다 학생증(스마트카드)의 개인정보 수집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 해야 한다
2) 기본적 사항 외에는 수집해서는 안된다
3) 지금이 적당한 것 같다
4) 사생활 정보 등 문제되는 부분만을 제외한 개인정보 수집은 상관없다
5) 다기능카드로서의 학생증을 위해서는 현재의 개인정보 수집 정도는 상관없다



문9	빈도	퍼센트
수집최소화	104	34.7
기본사항만수집	135	45.0
지금이적당	26	8.7
사생활부분제외는상관없음	30	10.0
현재개인정보정도상관없음	5	1.7
합계	3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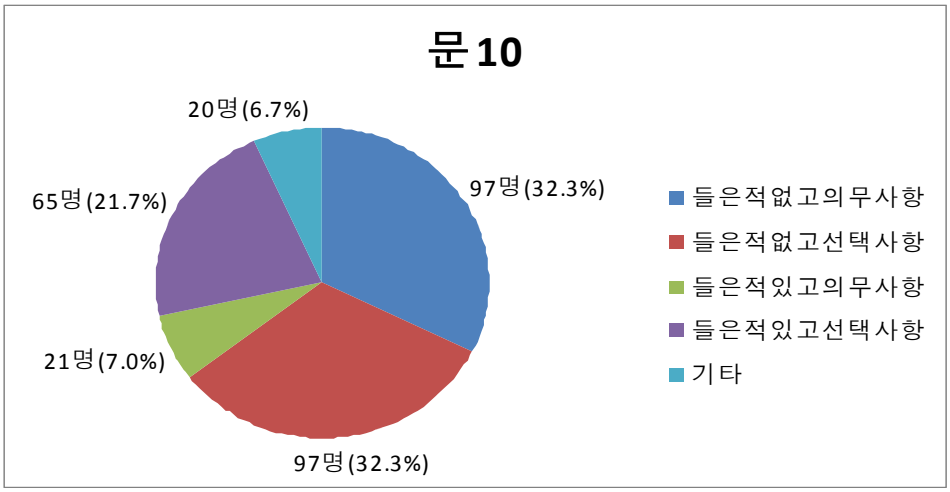
문9	대학					전체
	목원대	한발대	배재대	한남대	충남대	
수집최소화	15 25.0%	26 43.3%	21 35.0%	25 41.7%	17 28.3%	104 34.7%
기본사항만수집	26 43.3%	23 38.3%	27 45.0%	27 45.0%	32 53.3%	135 45.0%
지금이적당	12 20.0%	3 5.0%	5 8.3%	3 5.0%	3 5.0%	26 8.7%
사생활부분 제외는상관없음	6 10.0%	7 11.7%	5 8.3%	4 6.7%	8 13.3%	30 10.0%
현재개인정보 정도상관없음	1 1.7%	1 1.7%	2 3.3%	1 1.7%	0 .0%	5 1.7%
전체	60 100.0%	60 100.0%	60 100.0%	60 100.0%	60 100.0%	300 100.0%

문9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수집최소화	51 35.4%	53 34.0%	104 34.7%
기본사항만수집	59 41.0%	76 48.7%	135 45.0%
지금이적당	13 9.0%	13 8.3%	26 8.7%
사생활부분 제외는상관없음	19 13.2%	11 7.1%	30 10.0%
현재개인정보 정도상관없음	2 1.4%	3 1.9%	5 1.7%
전체	144 100.0%	156 100.0%	300 100.0%

문9	학년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수집최소화	31 40.8%	33 33.0%	17 30.9%	23 33.3%	104 34.7%
기본사항만수집	25 32.9%	47 47.0%	26 47.3%	37 53.6%	135 45.0%
지금이적당	8 10.5%	8 8.0%	6 10.9%	4 5.8%	26 8.7%
사생활부분 제외는상관없음	11 14.5%	12 12.0%	2 3.6%	5 7.2%	30 10.0%
현재개인정보 정도상관없음	1 1.3%	0 .0%	4 7.3%	0 .0%	5 1.7%
전체	76 100.0%	100 100.0%	55 100.0%	69 100.0%	300 100.0%

문10. 우리 학교 학생증(스마트카드) 발급시 편의상 특정 은행계좌를 신규개설 또는 기존계좌를 연결하도록 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능을 제외한 학생증만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교직원 또는 은행직원에게 들은 경험이 있습니까?

1) 설명을 들은 경험이 없고 학생증 발급을 위해서는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다
2) 설명을 들은 경험이 없지만 학생증 발급이 선택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3) 설명을 들은 경험이 있지만 의무사항이라고 설명했다
4) 설명을 들은 경험이 있고 학생증 발급이 선택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5) 기타( )



문10	빈도	퍼센트
들은적없고의무사항	97	32.3
들은적없고선택사항	97	32.3
들은적있고의무사항	21	7.0
들은적있고선택사항	65	21.7
기타	20	6.7
합계	300	100.0

문10	대학					전체
	목원대	한발대	배재대	한남대	충남대	
들은적없고 의무사항	15 25.0%	14 23.3%	15 25.0%	18 30.0%	35 58.3%	97 32.3%
들은적없고 선택사항	18 30.0%	20 33.3%	18 30.0%	25 41.7%	16 26.7%	97 32.3%
들은적있고 의무사항	8 13.3%	5 8.3%	2 3.3%	4 6.7%	2 3.3%	21 7.0%
들은적있고 선택사항	15 25.0%	21 35.0%	23 38.3%	1 1.7%	5 8.3%	65 21.7%
기타	4 6.7%	0 .0%	2 3.3%	12 20.0%	2 3.3%	20 6.7%
전체	60 100.0%	60 100.0%	60 100.0%	60 100.0%	60 100.0%	3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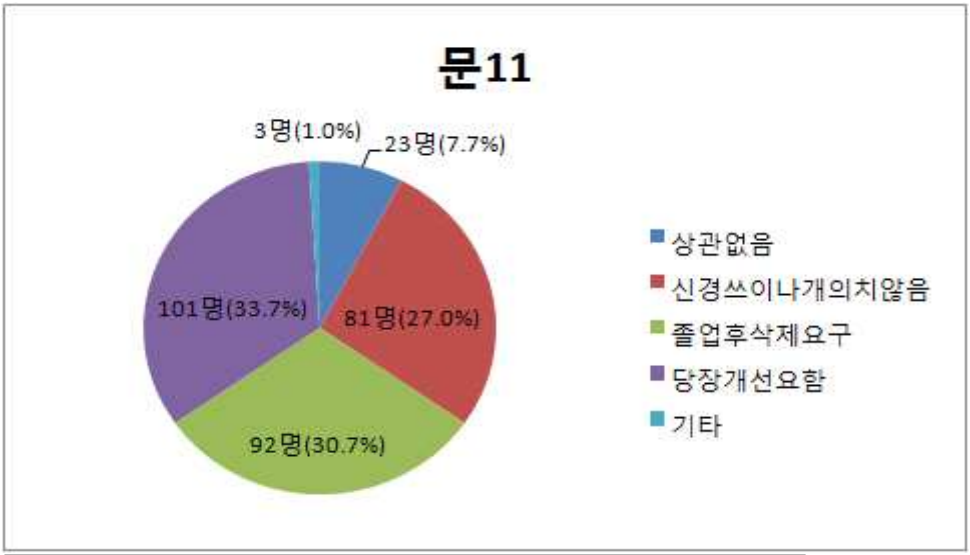
문10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들은적없고 의무사항	42 29.2%	55 35.3%	97 32.3%
들은적없고 선택사항	54 37.5%	43 27.6%	97 32.3%
들은적있고 의무사항	10 6.9%	11 7.1%	21 7.0%
들은적있고 선택사항	29 20.1%	36 23.1%	65 21.7%
기타	9 6.3%	11 7.1%	20 6.7%
전체	144 100.0%	156 100.0%	300 100.0%

문10	학년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들은적없고 의무사항	17 22.4%	30 30.0%	21 38.2%	29 42.0%	97 32.3%
들은적없고 선택사항	14 18.4%	38 38.0%	18 32.7%	27 39.1%	97 32.3%
들은적있고 의무사항	8 10.5%	4 4.0%	7 12.7%	2 2.9%	21 7.0%
들은적있고 선택사항	32 42.1%	21 21.0%	3 5.5%	9 13.0%	65 21.7%
기타	5 6.6%	7 7.0%	6 10.9%	2 2.9%	20 6.7%
전체	76 100.0%	100 100.0%	55 100.0%	69 100.0%	300 100.0%

문10 기타응답 no	내용
1	없다
12	모른다
13	안쓴다
125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
167	학생회에서 알려줌
182	학교에서 미발급이므로 모름
193	스마트카드를 사용하지 않음
200	모른다
201	연결하도록 하지 않음
220	학생증에 금융기능이 없음
223	못들음
227	없음
234	없음
235	없음
239	전혀모름
243	은행직원에게 들은바 있음

문11. 학생의 졸업 후에도 학생증 신청 시 개인정보가 계속적으로 남는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상관없다
2) 신경은 쓰이나 개의치 않는다
3) 졸업 후에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것이다
4) 이러한 점은 당장 개선되어야 한다
5) 기타( )



문11	빈도	퍼센트
상관없음	23	7.7
신경쓰이나개의치않음	81	27.0
졸업후삭제요구	92	30.7
당장개선요함	101	33.7
기타	3	1.0
합계	300	100.0

문11	대학					전체
	목원대	한발대	배재대	한남대	충남대	
상관없음	6 10.0%	5 8.3%	5 8.3%	3 5.0%	4 6.7%	23 7.7%
신경쓰이나 개의치않음	22 36.7%	12 20.0%	16 26.7%	18 30.0%	13 21.7%	81 27.0%
졸업후삭제요구	13 21.7%	27 45.0%	19 31.7%	21 35.0%	12 20.0%	92 30.7%
당장개선요함	19 31.7%	16 26.7%	20 33.3%	18 30.0%	28 46.7%	101 33.7%
기타	0 .0%	0 .0%	0 .0%	0 .0%	3 5.0%	3 1.0%
전체	60 100.0%	60 100.0%	60 100.0%	60 100.0%	60 100.0%	3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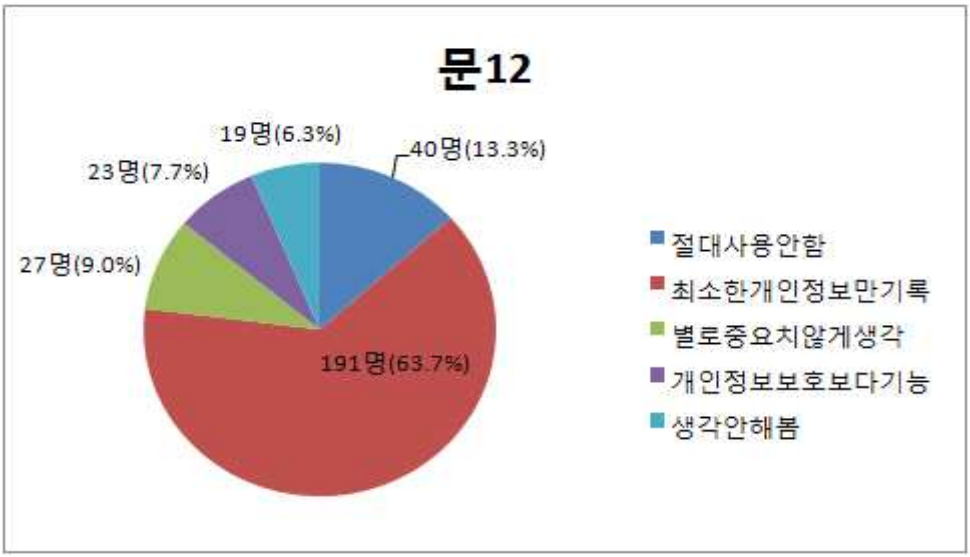
문11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상관없음	16 11.1%	7 4.5%	23 7.7%
신경쓰이나 개의치않음	40 27.8%	41 26.3%	81 27.0%
졸업후삭제 요구	45 31.3%	47 30.1%	92 30.7%
당장개선요함	40 27.8%	61 39.1%	101 33.7%
기타	3 2.1%	0 .0%	3 1.0%
전체	144 100.0%	156 100.0%	300 100.0%

문11	학년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상관없음	9 11.8%	7 7.0%	4 7.3%	3 4.3%	23 7.7%
신경쓰이나 개의치않음	18 23.7%	26 26.0%	16 29.1%	21 30.4%	81 27.0%
졸업후 삭제요구	29 38.2%	27 27.0%	15 27.3%	21 30.4%	92 30.7%
당장개선요함	20 26.3%	40 40.0%	18 32.7%	23 33.3%	101 33.7%
기타	0 .0%	0 .0%	2 3.6%	1 1.4%	3 1.0%
전체	76 100.0%	100 100.0%	55 100.0%	69 100.0%	300 100.0%

문11 기타응답 no	내용
247	몰랐음
278	부분삭제 요구

문12. 여러분들이 학생증(스마트카드)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때마다 자신이 몇 번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고 어떤 수업을 수강하며 어떠한 물품을 구입했는지 등의 기록 정보가 남게 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프라이버시 보호가 중요하므로 학생증의 스마트카드 기능을 사용하지 않겠다
2)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에는 기록되어서는 안된다
3) 학생증(스마트카드) 사용 시 기록되는 정보는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한다
4) 프라이버시 보호보다는 학생증(스마트카드)의 편의성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5)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다



문12	빈도	퍼센트
절대사용안함	40	13.3
최소한개인정보만기록	191	63.7
별로중요치않게생각	27	9.0
개인정보보호보다기능중시	23	7.7
생각안해봄	19	6.3
합계	3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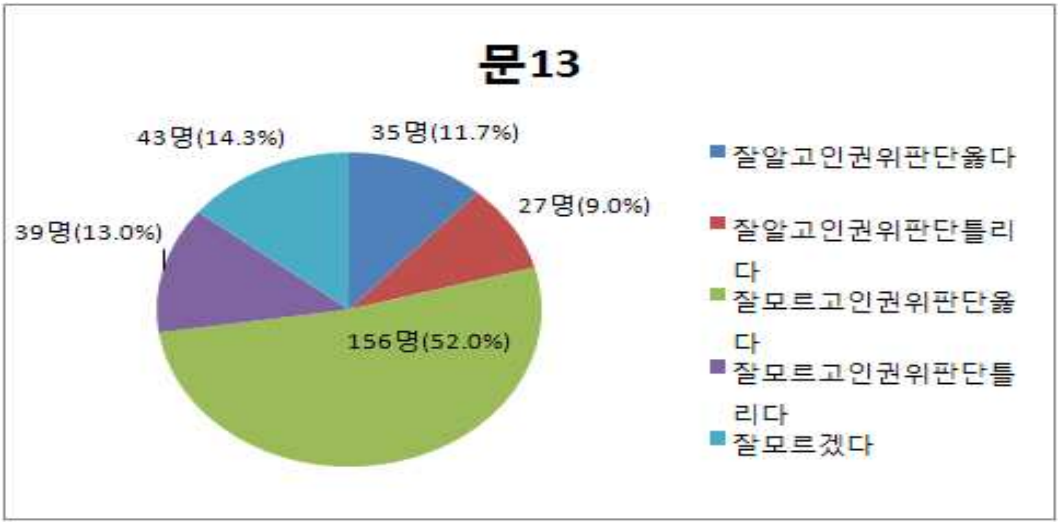
문12	대학					전체
	목원대	한발대	배재대	한남대	충남대	
절대사용안함	8 13.3%	10 16.7%	8 13.3%	11 18.3%	3 5.0%	40 13.3%
최소한 개인정보만기록	31 51.7%	38 63.3%	40 66.7%	35 58.3%	47 78.3%	191 63.7%
별로 중요치않게생각	7 11.7%	4 6.7%	3 5.0%	8 13.3%	5 8.3%	27 9.0%
개인정보보호 보다기능중시	12 20.0%	4 6.7%	3 5.0%	2 3.3%	2 3.3%	23 7.7%
생각안해봄	2 3.3%	4 6.7%	6 10.0%	4 6.7%	3 5.0%	19 6.3%
전체	60 100.0%	60 100.0%	60 100.0%	60 100.0%	60 100.0%	300 100.0%

문12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절대사용안함	19 13.2%	21 13.5%	40 13.3%
최소한개인 정보만기록	83 57.6%	108 69.2%	191 63.7%
별로중요치 않게생각	18 12.5%	9 5.8%	27 9.0%
개인정보보호 보다기능중시	13 9.0%	10 6.4%	23 7.7%
생각안해봄	11 7.6%	8 5.1%	19 6.3%
전체	144 100.0%	156 100.0%	300 100.0%

문12	학년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절대사용안함	13 17.1%	12 12.0%	10 18.2%	5 7.2%	40 13.3%
최소한개인 정보만기록	46 60.5%	62 62.0%	34 61.8%	49 71.0%	191 63.7%
별로중요치 않게생각	6 7.9%	10 10.0%	5 9.1%	6 8.7%	27 9.0%
개인정보보호 보다기능중시	6 7.9%	9 9.0%	5 9.1%	3 4.3%	23 7.7%
생각안해봄	5 6.6%	7 7.0%	1 1.8%	6 8.7%	19 6.3%
전체	76 100.0%	100 100.0%	55 100.0%	69 100.0%	300 100.0%

문13.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스마트카드 발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잘 알고 있고 인권위의 판단은 옳다고 생각한다
2) 잘 알고 있고 인권위의 판단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3) 잘 몰랐으나 인권위의 판단은 옳다고 생각한다
4) 잘 몰랐으나 인권위의 판단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5) 잘 모르겠다



문13	빈도	퍼센트
잘알고인권위판단옳다	35	11.7
잘알고인권위판단틀리다	27	9.0
잘모르고인권위판단옳다	156	52.0
잘모르고인권위판단틀리다	39	13.0
잘모르겠다	43	14.3
합계	300	100.0

문13	대학					전체
	목원대	한발대	배재대	한남대	충남대	
잘알고인권위 판단옳다	9 15.0%	11 18.3%	5 8.3%	6 10.0%	4 6.7%	35 11.7%
잘알고인권위 판단틀리다	4 6.7%	3 5.0%	6 10.0%	11 18.3%	3 5.0%	27 9.0%
잘모르고 인권위판단옳다	28 46.7%	28 46.7%	30 50.0%	27 45.0%	43 71.7%	156 52.0%
잘모르고인권위 판단틀리다	7 11.7%	10 16.7%	11 18.3%	7 11.7%	4 6.7%	39 13.0%
잘모르겠다	12 20.0%	8 13.3%	8 13.3%	9 15.0%	6 10.0%	43 14.3%
전체	60 100.0%	60 100.0%	60 100.0%	60 100.0%	60 100.0%	300 100.0%

문13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잘알고인권위 판단옳다	22 15.3%	13 8.3%	35 11.7%
잘알고인권위판단틀리다	20 13.9%	7 4.5%	27 9.0%
잘모르고인권위 판단옳다	63 43.8%	93 59.6%	156 52.0%
잘모르고인권위 판단틀리다	17 11.8%	22 14.1%	39 13.0%
잘모르겠다	22 15.3%	21 13.5%	43 14.3%
전체	144 100.0%	156 100.0%	300 100.0%

문13	학년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잘알고인권위 판단옳다	6 7.9%	12 12.0%	9 16.4%	8 11.6%	35 11.7%
잘알고인권위 판단틀리다	10 13.2%	7 7.0%	8 14.5%	2 2.9%	27 9.0%
잘모르고인권위 판단옳다	36 47.4%	51 51.0%	28 50.9%	41 59.4%	156 52.0%
잘모르고인권위 판단틀리다	14 18.4%	12 12.0%	4 7.3%	9 13.0%	39 13.0%
잘모르겠다	10 13.2%	18 18.0%	6 10.9%	9 13.0%	43 14.3%
전체	76 100.0%	100 100.0%	55 100.0%	69 100.0%	300 100.0%

문14. 스마트카드에 더 추가하고 싶으신 기능이 있습니까? 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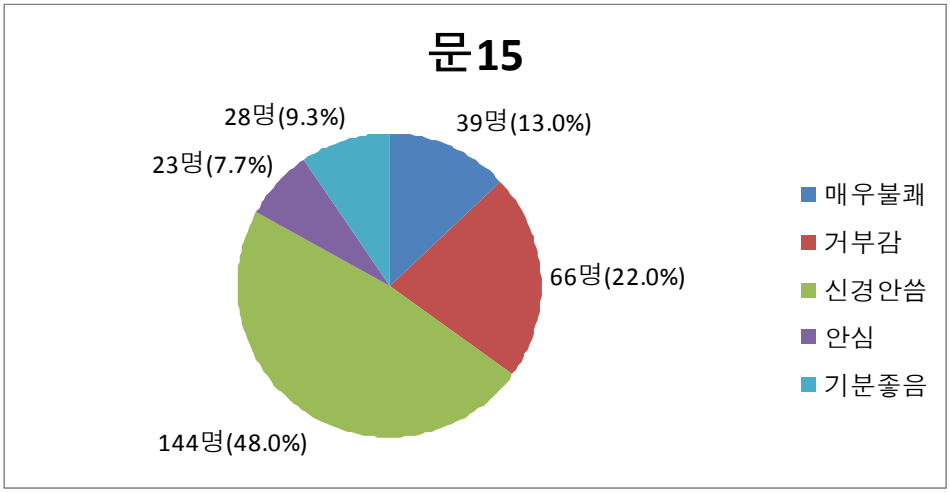
문14 응답 no	내용	문14 응답 no	내용
25	현금결재	223	신용카드기능 추가
33	수강기록저장기능의 제외	224	금융기능 불필요
62	금융서비스 필요없다	233	신용카드기능 불필요
90	보안장치 희망	236	특정포인트 적립기능 추가
115	교통카드	243	너무많은 기능을 추가할 필요는 없다
123	교통카드가 후불이 아니면 좋겠다	248	고장이 너무 심하다
141	기숙사 출입관리	249	전국단위 교통카드
146	인터넷뱅킹	254	체크카드 기능 추가
169	체크카드 기능이 불필요함	272	주민번호제거 희망
177	금융서비스 기능은 불필요함	280	문의서비스 기능
179	체크카드기능 불필요함	281	체크카드
195	교통카드기능	284	체크카드
201	스마트카드가 없어도 됨		
209	체크카드 기능		
220	금융서비스는 불필요		

3. 기타 설문 문항별 응답 분포(학교, 성별, 학년에 따른 응답 분포)

(1) 학내 CCTV

문15. 대학 내 CCTV를 접했을 때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1) 누군가의 감시를 받고 있는 것 같아 매우 불쾌하다
2) 행동할 때 신경이 쓰이고 거부감이 든다
3) 신경 쓰지 않는다
4) 혼자가 아니란 생각에 안심이 된다
5) 보호받고 있단 느낌에 기분이 좋다



문15	빈도	퍼센트
매우불쾌	39	13.0
거부감	66	22.0
신경안씀	144	48.0
안심	23	7.7
기분좋음	28	9.3
합계	3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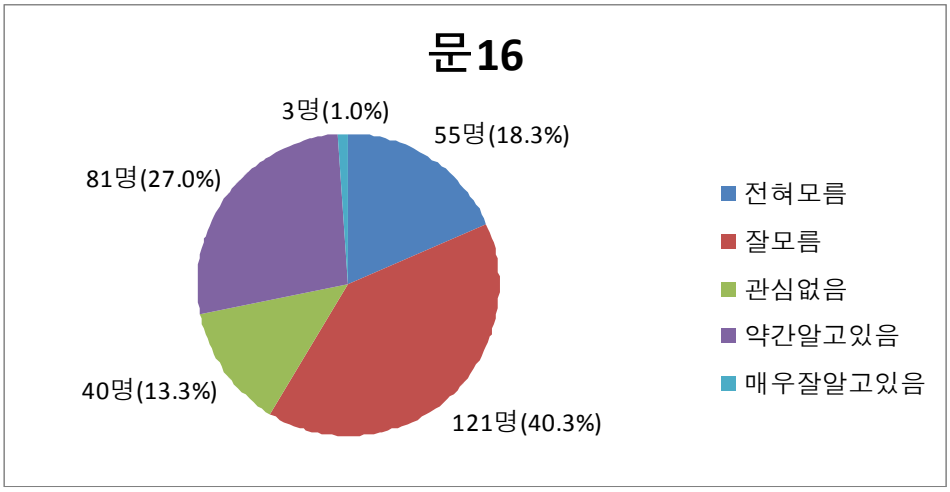
문15	대학					전체
	목원대	한발대	배재대	한남대	충남대	
매우불쾌	9 15.0%	8 13.3%	6 10.0%	12 20.0%	4 6.7%	39 13.0%
거부감	20 33.3%	12 20.0%	15 25.0%	10 16.7%	9 15.0%	66 22.0%
신경안씀	27 45.0%	31 51.7%	29 48.3%	27 45.0%	30 50.0%	144 48.0%
안심	2 3.3%	3 5.0%	5 8.3%	4 6.7%	9 15.0%	23 7.7%
기분좋음	2 3.3%	6 10.0%	5 8.3%	7 11.7%	8 13.3%	28 9.3%
전체	60 100.0%	60 100.0%	60 100.0%	60 100.0%	60 100.0%	300 100.0%

문15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매우불쾌	22 15.3%	17 10.9%	39 13.0%
거부감	31 21.5%	35 22.4%	66 22.0%
신경안씀	70 48.6%	74 47.4%	144 48.0%
안심	11 7.6%	12 7.7%	23 7.7%
기분좋음	10 6.9%	18 11.5%	28 9.3%
전체	144 100.0%	156 100.0%	300 100.0%

문15	학년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매우불쾌	10 13.2%	14 14.0%	6 10.9%	9 13.0%	39 13.0%
거부감	15 19.7%	24 24.0%	14 25.5%	13 18.8%	66 22.0%
신경안씀	39 51.3%	48 48.0%	28 50.9%	29 42.0%	144 48.0%
안심	2 2.6%	5 5.0%	3 5.5%	13 18.8%	23 7.7%
기분좋음	10 13.2%	9 9.0%	4 7.3%	5 7.2%	28 9.3%
전체	76 100.0%	100 100.0%	55 100.0%	69 100.0%	300 100.0%

문16. 대학 내에 CCTV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1) 아예 모른다
2) 잘 모른다
3) 관심 없다
4) 어느 정도 알고 있다
5) 매우 잘 알고 있다



문16	빈도	퍼센트
전혀모름	55	18.3
잘모름	121	40.3
관심없음	40	13.3
약간알고있음	81	27.0
매우잘알고있음	3	1.0
합계	3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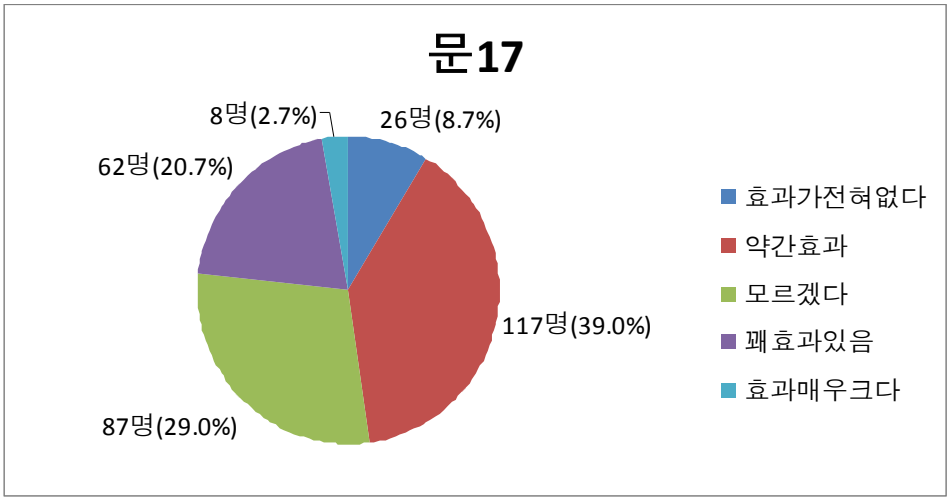
문16	대학					전체
	목원대	한밭대	배재대	한남대	충남대	
전혀모름	6 10.0%	15 25.0%	10 16.7%	12 20.0%	12 20.0%	55 18.3%
잘모름	23 38.3%	21 35.0%	26 43.3%	25 41.7%	26 43.3%	121 40.3%
관심없음	14 23.3%	6 10.0%	8 13.3%	11 18.3%	1 1.7%	40 13.3%
약간알고있음	16 26.7%	18 30.0%	15 25.0%	12 20.0%	20 33.3%	81 27.0%
매우잘알고있음	1 1.7%	0 .0%	1 1.7%	0 .0%	1 1.7%	3 1.0%
전체	60 100.0%	60 100.0%	60 100.0%	60 100.0%	60 100.0%	300 100.0%

문16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전혀모름	27 18.8%	28 17.9%	55 18.3%
잘모름	54 37.5%	67 42.9%	121 40.3%
관심없음	24 16.7%	16 10.3%	40 13.3%
약간알고있음	36 25.0%	45 28.8%	81 27.0%
매우잘알고있음	3 2.1%	0 .0%	3 1.0%
전체	144 100.0%	156 100.0%	300 100.0%

문16	학년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혀모름	17 22.4%	15 15.0%	11 20.0%	12 17.4%	55 18.3%
잘모름	28 36.8%	44 44.0%	21 38.2%	28 40.6%	121 40.3%
관심없음	12 15.8%	13 13.0%	10 18.2%	5 7.2%	40 13.3%
약간알고있음	19 25.0%	26 26.0%	12 21.8%	24 34.8%	81 27.0%
매우잘알고있음	0 .0%	2 2.0%	1 1.8%	0 .0%	3 1.0%
전체	76 100.0%	100 100.0%	55 100.0%	69 100.0%	300 100.0%

문17. CCTV가 대학 내에서의 범죄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효과가 전혀 없다
2) 약간 효과가 있다
3) 모르겠다
4) 꽤 효과가 있다
5) 효과가 매우 크다



문17	빈도	퍼센트
효과가전혀없다	26	8.7
약간효과	117	39.0
모르겠다	87	29.0
꽤효과있음	62	20.7
효과매우크다	8	2.7
합계	3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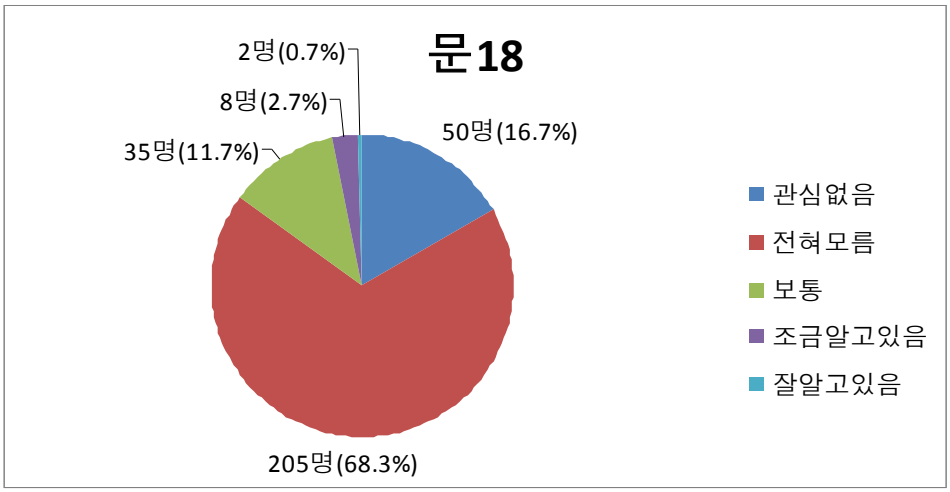
문17	대학					전체
	목원대	한밭대	배재대	한남대	충남대	
효과가전혀없다	4 6.7%	5 8.3%	11 18.3%	3 5.0%	3 5.0%	26 8.7%
약간효과	26 43.3%	24 40.0%	12 20.0%	22 36.7%	33 55.0%	117 39.0%
모르겠다	13 21.7%	17 28.3%	25 41.7%	23 38.3%	9 15.0%	87 29.0%
꽤효과있음	15 25.0%	12 20.0%	9 15.0%	11 18.3%	15 25.0%	62 20.7%
효과매우크다	2 3.3%	2 3.3%	3 5.0%	1 1.7%	0 .0%	8 2.7%
전체	60 100.0%	60 100.0%	60 100.0%	60 100.0%	60 100.0%	300 100.0%

문17	성별		전체
	남자	여자	
효과가전혀없다	14 9.7%	12 7.7%	26 8.7%
약간효과	44 30.6%	73 46.8%	117 39.0%
모르겠다	45 31.3%	42 26.9%	87 29.0%
꽤효과있음	36 25.0%	26 16.7%	62 20.7%
효과매우크다	5 3.5%	3 1.9%	8 2.7%
전체	144 100.0%	156 100.0%	300 100.0%

문17	학년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효과가전혀없다	11 14.5%	8 8.0%	4 7.3%	3 4.3%	26 8.7%
약간효과	26 34.2%	37 37.0%	25 45.5%	29 42.0%	117 39.0%
모르겠다	22 28.9%	31 31.0%	15 27.3%	19 27.5%	87 29.0%
꽤효과있음	12 15.8%	21 21.0%	11 20.0%	18 26.1%	62 20.7%
효과매우크다	5 6.6%	3 3.0%	0 .0%	0 .0%	8 2.7%
전체	76 100.0%	100 100.0%	55 100.0%	69 100.0%	300 100.0%

문18. 나는 우리 학교 내의 CCTV에 기록된 자료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1) 관심 없다
2) 전혀 모른다
3) 보통이다
4) 조금 알고 있다
5) 잘 알고 있다



문18	빈도	퍼센트
관심없음	50	16.7
전혀모름	205	68.3
보통	35	11.7
조금알고있음	8	2.7
잘알고있음	2	.7
합계	300	100.0

문18	대학					전체
	목원대	한밭대	배재대	한남대	충남대	
관심없음	12 20.0%	13 21.7%	9 15.0%	11 18.3%	5 8.3%	50 16.7%
전혀모름	35 58.3%	37 61.7%	44 73.3%	38 63.3%	51 85.0%	205 68.3%
보통	10 16.7%	8 13.3%	4 6.7%	10 16.7%	3 5.0%	35 11.7%
조금알고있음	2 3.3%	2 3.3%	3 5.0%	0 .0%	1 1.7%	8 2.7%
잘알고있음	1 1.7%	0 .0%	0 .0%	1 1.7%	0 .0%	2 .7%
전체	60 100.0%	60 100.0%	60 100.0%	60 100.0%	60 100.0%	3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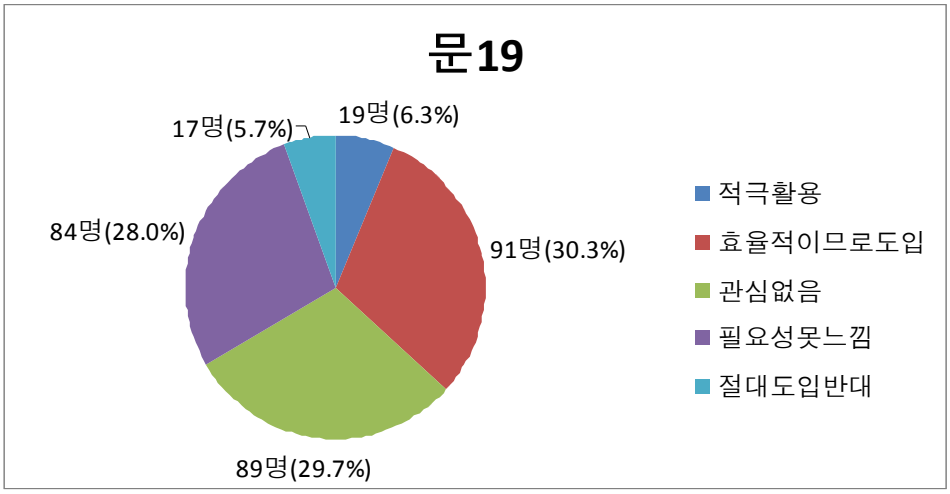
문18	성별		전체
	남자	여자	
관심없음	32 22.2%	18 11.5%	50 16.7%
전혀모름	85 59.0%	120 76.9%	205 68.3%
보통	20 13.9%	15 9.6%	35 11.7%
조금알고있음	5 3.5%	3 1.9%	8 2.7%
잘알고있음	2 1.4%	0 .0%	2 .7%
전체	144 100.0%	156 100.0%	300 100.0%

문18	학년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관심없음	17 22.4%	14 14.0%	10 18.2%	9 13.0%	50 16.7%
전혀모름	42 55.3%	77 77.0%	38 69.1%	48 69.6%	205 68.3%
보통	15 19.7%	7 7.0%	5 9.1%	8 11.6%	35 11.7%
조금알고있음	2 2.6%	0 .0%	2 3.6%	4 5.8%	8 2.7%
잘알고있음	0 .0%	2 2.0%	0 .0%	0 .0%	2 .7%
전체	76 100.0%	100 100.0%	55 100.0%	69 100.0%	300 100.0%

(2) 생체정보시스템

문19. 일부 대학교에선 생체정보를 이용한 손혈관시스템등의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체정보를 활용한 기술의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생체정보를 더 많이 활용하여 여러 기능에 사용해야 한다
2) 편리하고 효율적이므로 도입되어야 한다
3) 관심 없다
4) 도입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5) 인권침해이다.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



문19	빈도	퍼센트
적극활용	19	6.3
효율적이므로도입	91	30.3
관심없음	89	29.7
필요성못느낌	84	28.0
절대도입반대	17	5.7
합계	300	100.0

문19	대학					전체
	목원대	한밭대	배재대	한남대	충남대	
적극활용	3 5.0%	6 10.0%	5 8.3%	1 1.7%	4 6.7%	19 6.3%
효율적이므로 도입	20 33.3%	17 28.3%	13 21.7%	15 25.0%	26 43.3%	91 30.3%
관심없음	20 33.3%	19 31.7%	19 31.7%	19 31.7%	12 20.0%	89 29.7%
필요성못느낌	13 21.7%	16 26.7%	19 31.7%	23 38.3%	13 21.7%	84 28.0%
절대도입반대	4 6.7%	2 3.3%	4 6.7%	2 3.3%	5 8.3%	17 5.7%
전체	60 100.0%	60 100.0%	60 100.0%	60 100.0%	60 100.0%	3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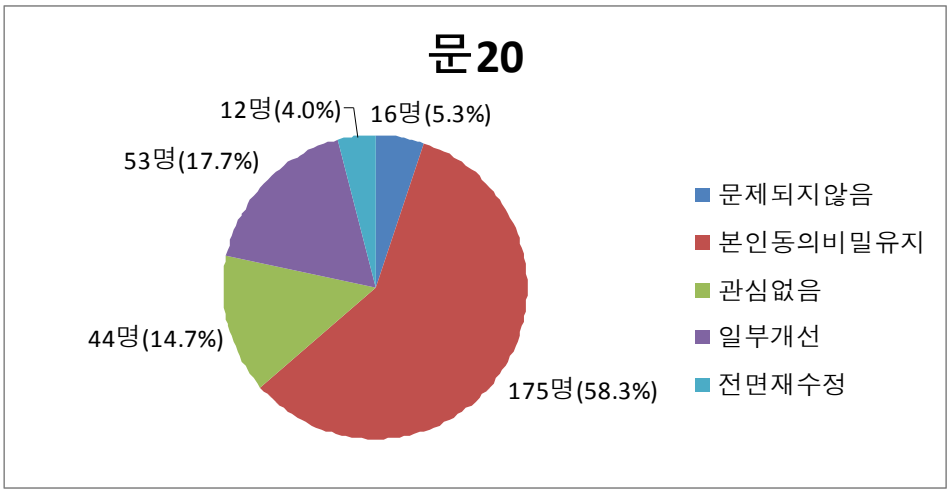
문19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적극활용	14 9.7%	5 3.2%	19 6.3%
효율적이므로 도입	48 33.3%	43 27.6%	91 30.3%
관심없음	41 28.5%	48 30.8%	89 29.7%
필요성못느낌	35 24.3%	49 31.4%	84 28.0%
절대도입반대	6 4.2%	11 7.1%	17 5.7%
전체	144 100.0%	156 100.0%	300 100.0%

문19	학년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적극활용	8 10.5%	6 6.0%	3 5.5%	2 2.9%	19 6.3%
효율적이므로 도입	24 31.6%	31 31.0%	16 29.1%	20 29.0%	91 30.3%
관심없음	27 35.5%	24 24.0%	19 34.5%	19 27.5%	89 29.7%
필요성못느낌	16 21.1%	34 34.0%	14 25.5%	20 29.0%	84 28.0%
절대도입반대	1 1.3%	5 5.0%	3 5.5%	8 11.6%	17 5.7%
전체	76 100.0%	100 100.0%	55 100.0%	69 100.0%	300 100.0%

(3) 지도교수제도

문20. 대학교에선 지도교수신청등 지도교수제도의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수집 ·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지도교수님이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 한다
2) 본인의 동의가 있고, 비밀유지가 된다면 상관없다
3) 관심 없다
4)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일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5) 인권침해이므로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



문20	빈도	퍼센트
문제되지않음	16	5.3
본인동의비밀유지	175	58.3
관심없음	44	14.7
일부개선	53	17.7
전면재수정	12	4.0
합계	300	100.0

문20	대학					전체
	목원대	한발대	배재대	한남대	충남대	
문제되지않음	2 3.3%	5 8.3%	1 1.7%	7 11.7%	1 1.7%	16 5.3%
본인동의 비밀유지	31 51.7%	37 61.7%	34 56.7%	28 46.7%	45 75.0%	175 58.3%
관심없음	9 15.0%	6 10.0%	12 20.0%	12 20.0%	5 8.3%	44 14.7%
일부개선	15 25.0%	10 16.7%	12 20.0%	8 13.3%	8 13.3%	53 17.7%
전면재수정	3 5.0%	2 3.3%	1 1.7%	5 8.3%	1 1.7%	12 4.0%
전체	60 100.0%	60 100.0%	60 100.0%	60 100.0%	60 100.0%	300 100.0%

문20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문제되지않음	12 8.3%	4 2.6%	16 5.3%
본인동의 비밀유지	82 56.9%	93 59.6%	175 58.3%
관심없음	22 15.3%	22 14.1%	44 14.7%
일부개선	22 5.3%	31 19.9%	53 17.7%
전면재수정	6 4.2%	6 3.8%	12 4.0%
전체	144 100.0%	156 100.0%	300 100.0%

문20	학년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문제되지않음	2 2.6%	6 6.0%	3 5.5%	5 7.2%	16 5.3%
본인동의 비밀유지	46 60.5%	56 56.0%	33 60.0%	40 58.0%	175 58.3%
관심없음	16 21.1%	14 14.0%	7 12.7%	7 10.1%	44 14.7%
일부개선	10 13.2%	20 20.0%	9 16.4%	14 20.3%	53 17.7%
전면재수정	2 2.6%	4 4.0%	3 5.5%	3 4.3%	12 4.0%
전체	76 100.0%	100 100.0%	55 100.0%	69 100.0%	300 100.0%

4. 설문지 통계 분석 결과

(1) 스마트카드

○ 학생증, 도서관 이용 외에 금융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
○ 스마트카드의 도입에 대해 매우 호의적(78.7%)
○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무관심(79.6%)
○ 인권침해적 요소의 존재에 대해 일부 있음(35.7%), 심각(7%), 침해 없음(1.7%)
○ 스마트카드의 사용자와 미사용자의 비율은 각 절반 정도
○ 사용빈도는 거의 없거나 적은 편(51.7%), 많은 편(14.7%)
○ 개인정보유출 최소화를 위해 스마트카드 미사용(4.5%)
○ 스마트카드의 사용 이유는 편의성 때문(43.2%), 의지와 상관없이(32.2%)
○ 개인정보에 관한 고지 못 받았고 사용처 모른다(64%) / 고지 받았고 사용처 안다(4.3%)
○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에 대해 크다(39.4%), 적다(8.7%)
○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 수집을 최소화 하거나 기본사항만 수집해야 한다(79.7%)
○ 금융기능을 제외할 수 있다는 설명 들은 적 없다(64.6%)
○ 개인정보가 계속 남는다는 것에 관해 - 당장개선(33.7%), 삭제요구(30.7%), 개의치 않음(27%), 상관 없음(7.7%)
○ 스마트카드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옳다(63.7%), 틀리다(22%)

(2) 기타 설문

○ CCTV를 접했을 때의 느낌 - 신경 안씀(48%), 거부감(35%), 안심(17%)
○ CCTV의 설치 장소에 대해 - 잘모름(40.3%), 전혀모름(18.3%), 조금안다(27%), 잘안다(1%)
○ CCTV의 범죄 예방 효과 - 효과 있다(62.4%), 효과 없다(8.7%)
○ CCTV에 기록된 자료 처리에 관해 - 전혀 모름(68.3%), 조금 안다(2.7%), 잘안다(0.7%)
○ 생체정보를 활용한 기술의 도입에 대해 - 도입 찬성(36.6%), 도입 반대(33.7%)
○ 지도교수제도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 본인 동의 하에 비밀유지(58.3%), 일부 개선 및 수정(21.7%), 문제 없다(5.3%)

Ⅳ. 일반적 문제점 및 통계조사로 본 스마트카드의 문제점

1. 스마트카드의 일반적 문제점

(1) 두 종류 학생증 발급으로 인한 학생들의 혼돈

스마트카드의 학생증을 발급 할 때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존중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재로는 신청을 받는 과정이나 학내 제도를 변경하는 모습 등에서 스마트카드의 발급과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

스마트카드 없이 학생증으로만 학교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의 기능을 탑재한 학생증인 스마트카드의 이용 없이는 학교의 정보기술 활용이 적용되는 도서관이용이나 도서대출 및 출석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여 사실상 스마트카드의 강제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2) 약관 설명과 제시의 부실

스마트카드를 신청할 당시 작성하는 신청서에 약관의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고, 약관의 설명 및 제시 또한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채 학생 개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 업무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카드발급의 경우 신속한 서류처리를 위해 해당학생들에게 자세한 약관과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약관설명에 대해 대학내 은행의 경우 밀려있는 대기인원을 고려해 사실상 생략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대학내 은행의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미고지의 관행으로 젊은이들인 대학생의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권적 마인드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활용 문제점

금융기능의 사용에 동의할 때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본인의 서명만을 요구 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개인정보에 대해 제대로 그 주체인 개인정보 관련자들의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고, 또한 정기적으로 개인의 정보수정이나 확인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단순히 은행에서는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이용하여 서명을 받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정보는 또한 졸업 후에도 남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삭제의 의무가 은행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은행기관과 카드회사간의 개인정보 공유의 문제도 전혀 소비자에게 고지되지 않고, 통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볼 수 있다.

(4) 사생활침해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 절실

만약 개인의 정보 관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현재에는 그 문제의 발생 사실조차 본인에게 통보되지 않은 채 내버려 둘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소재 또한 분명치 않아 그 문제의 해결도 힘들다. 은행 등에 있어서 스마트카드 제조업자는 다른 곳이 있으므로 이러한 카드제조과정에서 개인정보유출의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인권으로서 사생활보호의 문제가 정보기술활용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 하나로통신 등 통신회사의 개인고객정보유출의 문제가 보여 주듯이 스마트카드의 경우도 개인의 재정상태, 학내 활동상태, 교통이용상태, 대출상태, 출석상태 등 사생활정보를 집적한 이러한 형태의 정보들이 유출되는 경우 개인은 커다란 사생활침해의 피해를 입을 것이 틀림없다.

(5) 대학내 조교인력 축소목적의 부당성

스마트 카드가 대학내 활용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동안 조교가 담당했던 출결체크 업무를 줄여서 결국 조교장학금을 줄여보자는 의도가 있다. 이러한 목적이라면 스마트카드는 결국 대학내 조교 근로권이라는 또 다른 인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대학내 업무를 학생들이 조교의 신분으로 도와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서 장학금을 받는 제도가 스마트카드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활용과 대학내 학생들의 장학금지급축소의 문제가 충돌하는 경우 현명한 방향으로의 결론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2. CCTV의 일반적 문제점

(1)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문제

CCTV를 설치함으로써 범죄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학생 전체를 잠정적인 범행 대상자로 보게 된다.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증가되고 있는 대학내 CCTV활용이 사실상 개인들의 사생활침해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학내 그동안 보안담당직원을 해고하고 대신 등장하고 있는 CCTV는 대학내 고용불안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도서관에 설치되고 있는 CCTV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를 잠재적 범법자로 추정하는데 불편스럽게 여기고 있다.

(2) 인격권침해의 문제

학생들 대부분은 많은 시간을 도서관 및 단과대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를 일일이 감시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에서의 학습활동이나, 수업중의 행동 또는 대학내 주요 도로에서의 보행모습 등을 CCTV를 통해 저장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인격에 대한 침해를 유발한다. 전체주의적 사회가 아닌 민주적인 사회생활이 감시받고 통제받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라고 본다.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CCTV는 그 촬영 장면을 일거수일투족 전부 녹화하기 때문에 이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충분하다. 개인의 수정 또는 삭제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활동을 녹화한 것에 대해 수정이나 삭제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받아들이는 제도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대학내 점차 증가하는 CCTV로 인해 학생들의 불만을 단지 보안상의 이유만으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학내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 보안과 관련 없는 녹화는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4) 사생활의 침해

사생활의 비밀 유지가 중요한 현대에서 CCTV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 하고 있다. CCTV의 대학내 운용은 필요한 장소에 가장 최소의 숫자만 요구되는 것이고 대학내 인력감축을 위한 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생활영역이 중요시 되는 현대에 있어서 감수성이 예민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CCTV의 활용은 득보다 실이 큰 것이 사실이다. 사생활의 중요성이라는 인권민감성도 CCTV

설치를 통해 약화되어 가고 있고, 이로 인해 향후 대학졸업후의 사회생활에도 권위적인 체제에 순응할 위험 또한 존재한다고 본다.

3. 통계 조사로 본 대학 내 스마트카드의 활용 문제점

(1) 개인정보의 집적화 문제

스마트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신용카드사용 정보와 개인 사생활 정보의 융합이 이루어져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스마트카드에 내재되어 있는 생체정보의 활용 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의 위험도가 증가한다.

지도교수제도의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가 축적됨으로써 정보남용의 우려가 있다.

스마트카드를 학내 시스템에서 사용할 때마다 도서대여 정보, 출석 정보가 그 카드에 남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학생의 차별적 평가가 가능해진다.

(2) 편리함으로 인한 인권의식의 저하 문제

설문지 통계에 따르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스마트카드의 일부 기능이 좋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학내 도서관 CCTV, 지문인증 방식의 자리배정에 관해서 인권침해의식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

(3) 도난 및 범죄 활용 가능성

스마트카드에 다양한 기능과 더불어 개인의 거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스마트카드를 악이용 하여 무단 계좌이체 등의 불법사용의 증가가 예상 된다. 대학은 사회영역과 달리 보안에 취약한 지역이다.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경찰 등의 치안담당자들의 활동이 없어 범죄행위가 증가될 수 있다. 더욱이 스마트카드가 고가의 책들을 대출하는데 사용된다면, 대학이 범죄발생의 새로운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된다. 또한 신용카드기능과 교통카드기능 등이 있어 상당액의 인출이 가능한 것도 사실이어서 범죄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4) 위화감 조성

현금카드 기능 및 체크카드의 기능과 더불어 학생 신용불량자 양산과 대학 내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 한다.

대학내에서 신용카드 등을 쓸수 있는 경제적 여유층과 학생증카드만 발급받는 학생들간에 상대적 위화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차이는 학생시절에 지나친 경제중심의 사고를 키울 수 있고, 학내의 경제적 계층감을 키워 올바른 시민으로서의 존중과 학교 동료로서의 친밀감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학업에 열중하여야 할 시기에 소비적 분위기를 조장하는 스마트카드에 대한 학생들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5) 과소비 조장

학내 식당 및 서점, 자판기 등을 이용 할때 스마트카드의 사용으로 인해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과소비 현상이 등장하고 있다.

스마트카드를 전자화폐화로 사용함으로써 학내에 고가 이용점의 등장과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Ⅴ. 통계조사 결과의 의미

1. 대학 내 미흡한 인권의식

(1) 스마트카드 도입에 호의적 태도

통계조사로 나타난 학생들의 스마트카드는 예상외로 호의적이었다. 스마트카드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학생들은 80%가까이 찬성이었다.[1] 스마트카드의 기능인 현금카드, 체크카드, 식당·자판기 등의 이용카드로의 활용이 학생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지나친 정보기술에 대한 무비판적인 호감을 반영한 것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다.

(2) 스마트카드의 인권침해요소에 대한 무관심

학생들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학생들이 스마트카드의 인권 침해적 요소의 인식 없이 스마트카드를 발급받고 또한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

1)

문2	빈도	퍼센트
절대도입반대	7	2.3
사용필요없음	40	13.3
남들사용하므로사용	16	5.3
일부기능좋음	152	50.7
매우필요	84	28.0
무응답	1	.3
합계	300	100.0

서 발표한 스마트카드의 인권 침해적 보도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스마트카드의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경우가 39%, 일부 있다고 답한 경우가 35.7%로 나타났다.[2] 이러한 결과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인권침해에 대해 무관심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스마트카드 활용의 강제성

학생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학내에서의 스마트카드의 활용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하고 학교행정에 의한 지시에 의해 강제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의 상당수가 스마트카드를 사용하고 대부분 스마트기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중 많은 학생들이 의지와 상관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스마트카드의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주체적인 생활보다는 학교행정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는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2.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몰인식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고지 없이 카드 발급

설문결과 학생들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설명 없이 카드를 발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명 중 64%의 학생이 자신의 개인정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지 못한 채 카드를 발급받고 있다.[4]

이러한 결과는 은행이나 학생 스스로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의식이 별로 없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은행의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나 고지 제도가

---

2)

문4	빈도	퍼센트
인권침해요소없음	5	1.7
본인동의전제하면괜찮음	49	16.3
잘모르겠음	117	39.0
일부있음	107	35.7
심각	21	7.0
무응답	1	.3
합계	300	100.0

3)

문1_2	빈도	퍼센트
남들도사용하므로	20	13.7
스마트카드이용위해	63	43.2
의지와상관없음	47	32.2
이유없음	11	7.5
기타	3	2.1
무응답	2	1.4
합계	146	100.0

전무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무관심

설문결과 학생들은 스마트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52%정도가 보통이다고 답하고 있다.[5] 스마트카드의 개인정보 집적의 위험성이 다른 신용카드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에 비하면 상당히 소극적 답변이라고 볼 수 있다. 스마트카드는 또한 도서관에서 무인 도서대출 및 반납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그 도난시의 위험도는 다른 신용카드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다.

(3) 졸업이후의 개인정보 존속의 문제

설문결과 상당수의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스마트카드의 개인정보가 존속하여 활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 등의 일정 기관들이 개인정보에 대해 졸업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도서관등에서도 스마트카드를 졸업이후에도 사용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도난 등의 문제로 발생할 위험에 무감각한 것이 현실이다.[6]

3. 사생활침해에 대한 인식 결여

---

4)

문7	빈도	퍼센트
고지받았고사용처안다	13	4.3
고지받았고사용처모른다	52	17.3
고지못받았고사용처안다	31	10.3
고지못받았고사용처모른다	192	64.0
기타	11	3.7
무응답	1	.3
합계	300	100.0

5)

문8	빈도	퍼센트
매우적다	2	.7
적다	24	8.0
보통	156	52.0
큰편	98	32.7
매우크다	20	6.7
합계	300	100.0

6)

문11	빈도	퍼센트
상관없음	23	7.7
신경쓰이나개의치않음	81	27.0
졸업후삭제요구	92	30.7
당장개선요함	101	33.7
기타	3	1.0
합계	300	100.0

(1) 스마트카드의 사생활정보 집적문제에 대해 무관심

설문결과 상당수의 학생들이 사생활정보가 스마트카드에 집적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스마트 카드를 통해 자신이 몇 번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고 어떤 수업을 수강하며 어떠한 물품을 구입했는지 등의 기록정보가 남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 최소한 개인정보만 기록되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다.[7]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 학생들이 개인정보가 스마트카드를 통해 집적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간과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강원대학교에서 진행된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 발급과정이 학생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강제로 진행되었다며 이는 헌법 17조 사생활 비밀과 자유, 10조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한 것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

4. 소결

대전 시내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스마트카드는 학교행정에 의해 임의적으로 강제 발급되는 실정이며, 이에 대해 학생들도 스마트카드가 지닌 편리함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발급되는 절차에 대해 별로 인권 침해적 인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설문의 결과 대학생들의 개인정보의 집적과 사생활침해의 위험성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7)

문12	빈도	퍼센트
절대사용안함	40	13.3
최소한개인정보만기록	191	63.7
별로중요치않게생각	27	9.0
개인정보보호보다기능	23	7.7
생각안해봄	19	6.3
합계	300	100.0

8)

문13	빈도	퍼센트
잘알고인권위판단옳다	35	11.7
잘알고인권위판단틀리다	27	9.0
잘모르고인권위판단옳다	156	52.0
잘모르고인권위판단틀리다	39	13.0
잘모르겠다	43	14.3
합계	300	100.0

VI. 개인정보보호의 이론적 현황과 인권법적 보호방법

1. 서

개인정보는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보호가 필요한 정보의 하나로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도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에 관해서 논의할 때에는 '개인정보', '개인데이터' '개인식별정보' 등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된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국가활동의 증대와 복잡화로 행정기관이 수집·축적하는 정보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기업이나 기타의 조직도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의 발전과 함께 이와 같이 정보의 유통·축적량이 증대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하며, 특히 그러한 정보의 컴퓨터관리가 행해지는 것으로 되고 있는 것이 현대사회의 큰 특징이다. 이 이점으로서는 문서량의 절약, 관리의 용이, 처리의 신속성, 데이터의 검색이나 결함의 용이성 등을 들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정보 중에 상당한 범위에서 이른바 개인정보로 불리어지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컴퓨터에 의한 관리는 그 합리성·효율성이 있는 반면, 정보의 누설이나 다른 목적이용의 용이함이라는 문제가 있으며, 적절한 관리와 보호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9)]

2. 정보기본권의 등장과 의의

21세기를 정보사회라 부르는데,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맞아 새롭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인권법적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소위 정보기본권으로 부르는 이러한 이론은 오늘날 학계에서 보편화되었다. 21세기 정보국가의 등장은 정보수집 면에서 현실세계를 해석하는 아날로그적 정보(수기적 정보)로 부터 사이버공간에서 이해되

9) 백윤철,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학연구, 제9권 제3호, 2003, 209면이하 참조.

는 디지털정보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디지털시대의 정보 수집은 과거와는 비교될 수 없는 수많은 개인정보들이 집적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보수집의 모습의 전환은 인터넷을 통해 이들 디지털정보가 교환됨으로서 편리성과 아울러 정보침해의 부작용이 등장하게 된다. 특히 개인동의 없이 진행되는 정보수집으로 인해 개인은 정보화 시대에 새로운 인권적 도전을 받고 있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인적사항이나 생활의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타인의 수중에서 거의 무한대로 집적되고 또는 제3자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 정보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국가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더욱 수집하고 감시하는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국민 모르는 국가의 비밀스런 정보활동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이메일 압수수색의 문제는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등장이 제기하는 헌법학과 법학일반의 새로운 주제가 되고 있다. 과거의 제도가 현재의 정보기술시대에 맞지 않는 법적 수단이 되어 버리고 말았고, 국민이 이를 더 이상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시대적 변화는 법학자들에게 상당한 당혹감을 주고 있다.

정보기본권은 정보의 자유와 보호를 규범영역으로 하는 국민의 권리다. 정보의 자유를 실현하는 정보기본권이 '정보공개청구권'(the right of freedom of information)이며, 정보의 보호를 실현하는 정보기본권이 '정보프라이버시권'(the right of information privacy) 및 '정보보안권'(the right of information security)이다. 그 중 중요한 정보프라이버시권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보프라이버시권은 정보의 보장적 개념으로서 정보내용의 비밀성(confidentiality) 보호를 위한 권리임에 대하여, 정보보안권은 정보의 보전적 개념으로서 정보형식의 완전성(data surveillance) 보호를 위한 권리다. 이 완전성에는 안전성(safety)과 무결성(integrity) 보호가 포함된다. 다만 다른 기본권과 달리, 정보기본권이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접속가능한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의 '보편적 정보접근권'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보보안권은 정보의 보전적 개념으로서의 정보형식의 완전성 즉 그 안전성과 무결성 보호를 위한 기본권이다. 정보보안권을 기본권으로 인식함으로써, 국민은 정보시스템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제의 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10]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등장

문자·소리·그림·동화상 등 정보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정보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쌍방향으로 빛의 속도로 전달되는 새로운 정보환경의 기술적 특성은 정보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 정보의 네트워크화, 정보전달의 쌍방향성, 정보의 영상화

10) 강경근, 정보보호의 헌법규범적 접근과 전망, 공법학연구, 제6권 제2호, 2005, 203면 이하 참조.

(visualization), 정보구성의 연상적 구조(Hypertext)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정보가 디지털화 된다는 것은 정보의 저장 및 재생능력이 무한히 확대되며, 빛의 속도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방식은 정보를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조작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정보의 디지털화는 미디어의 통합을 가져온다. 결국 정보의 디지털화와 미디어의 통합은 앞으로 개인이 그 어떤 방식을 통해 정보활동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 수행과정에서의 모든 개인정보가 손쉽게 그리고 무한대로 축적되고 처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보의 네트워크화와 정보전달의 상호작용성으로 인하여 결국 정보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었다. 즉 정보활동을 위해 컴퓨터의 키보드를 누르는 행위 자체가 곧 내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인 것이다. 그리고 그 행위는 사이버공간의 어딘가에 디지털화된 형태로 흔적을 남긴다.

이처럼 정보사회로 진전되면 될수록 개인의 행위 하나 하나는 모두 디지털화되어 일정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다. 오늘날 모든 공·사의 기관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개인에 대한 수많은 자료들을 디지털화된 형태로 가지고 있다. 인구학적 기본통계, 교육, 재정, 의료, 신용정보, 고용, 납세, 출입국, 치안관련자료, 사회복지, 군복무, 자동차관리, 백화점, 사회단체, 금융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사회가 정보화된다는 것은 모든 사회활동이 디지털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헌법적 승인을 요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사회적 상황 하에서이다.[11]

4. 스마트카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문제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와 내용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앞서 본 정보프라이버시권에 속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오늘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된 이유는 컴퓨터를 통한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용이 시공에 구애됨이

11) 이인호, 주문등록번호·지문날인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법률, 제8호, 2001, 53면.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정보처리의 자동화와 정보파일의 결합을 통하여 여러 기관간의 정보교환이 쉬워짐에 따라 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모든 기관이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개인의 인적 사항이나 생활상의 각종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되고 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환경에 처하게 되었고,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에 있어서의 국가적 역량의 강화로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능력이 현격히 증대되어 국가가 개인의 일상사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12)]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인권법적 근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위 각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두 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13)]

(3) 대학내 스마트카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위험성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대학내 스마트카드사용으로 위험을 받고 있다. 앞서 본 봐와 같이 은행업무등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절차에 대한 대학생들에게의 고지절차가 무시되고 있고, 학생들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스마트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졸업 후에도 이러한 정보들이 계속남아 있어 그 침해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설문은 보여주고 있다.

---

12) 헌재결 2005.5.26. 99헌마513.

1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근거를 보는 시각은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한 헌법 제10조로 보는 견해, 정영화, “생성되고 있는 정보기본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세계헌법연구 7호, 2003, 419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로 보는 견해,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8, 454면: 헌법 제17조뿐만 아니라 주거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6조와 통신의 비밀을 규정한 헌법 제18조도 보충적으로 작용한다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김일환,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29집 3호, 2001, 88면

VII. 대학내 정보기술 활용의 인권법적 문제

1. 스마트카드의 인권법적 문제

(1) 사생활침해의 문제

스마트카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생활정보에 대한 수집과 침해라는데 있다. 은행정보뿐만 아니라 교통, 신용, 도서 정보 등이 어우러져 거대한 사생활정보수집의 장소가 되어 버리고 만다.

스마트카드와 같은 정보기술의 발전과 그 응용이 이루어지면서 정보기술의 특성과 프라이버시 침해양상도 분명해졌다. 즉, 컴퓨터는 조직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민감한 개인자료를 수집하게 하며, 컴퓨터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컴퓨터화된 조직간에 개인자료의 자유로운 교환과 상호 응용을 가능하게 하고, 일부에서는 개인에 대한 비밀파일을 구축하게 됨이 분명해졌다. 특히 전산화된 개인정보는 서류에 기록된 개인정보와 달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격지 이용이 가능하며,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분실이나 손실의 가능성이 훨씬 적어 오랜 기간동안 보관할 수 있으며, 대량의 정보를 한 곳에 보관하여 상호대조할 수 있고, 정보의 일부만을 추출하거나 일괄적인 변환 등이 가능한데다, 개인의 다양한 생활상을 동시에 기록·보관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스마트카드로 인해 대학생들은 자신의 사생활을 하나의 카드에 기록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개인사생활이 외부 또는 대학내의 기관에 의해 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2) 정보집적의 인권법적 문제

스마트카드의 문제의 핵심은 사생활에 대한 집적된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이다. 특히 외부보다 내부에 의해 유출되는 경우, 수많은 사생활정보가 한꺼번에 알려져 유통될 수 있다. 특히 복사하거나 유통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운 디지털정보의 속성상 이는 커다란 개인인권침해를 유발한다.

또한 집적된 정보가 인터넷이라는 정보망과 연결되는 경우에 개인이 받는 문제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스마트카드에는 학생번호 이외에 사진, 주민번호, 은행계좌번호, 도서대출상태, 교통카드정보, 체크카드정보 등으로 그 정보량이 많아 보다 더 큰 위험이 존재한다. 인터넷이나 온라인 통신망이 보급되면서 컴퓨터의 환경이 이전의 폐쇄망 시스템에서 통신망 전체가 연결되는 개방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방 시스템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해킹 기법에 대한 보안대책이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이러한 집적된 정보를 하나의 카드에 보관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법 이론적 문제를 낳고 있어 재고가 요망된다.

(3) 대학생들 간의 위화감의 문제

스마트카드의 활용으로 인해 대학 내에서 스마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자와 그렇지 못한 학생들 간의 불평등의식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가장 민감한 나이의 청년들인 대학생들이 겪는 경제적 불평등은 고등학교 등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커다란 상실감이며, 스마트카드의 전제조건이 신용카드기능에 있는 것을 볼 때, 과연 스마트카드의 활용이 대학의 정서에 어울리는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평등권의 입장에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많은 대학생들에게 대학에서 스마트카드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인권법적 문제를 유발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대학에서의 스마트카드의 사용강제는 최소한 자제되어야 하고, 학생들의 선택이 전제되어야 정당성을 갖는다고 본다.

2. CCTV의 인권법적 문제

(1) 범죄예방적 효과의 논란

최근의 급격한 범죄증가는 각종 범죄학적 원인론에 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원인규명에 의한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운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데, CCTV는 이러한 각종 최신 범죄예방 및 통제기법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영국 내무성의 연구에서는 영국, 미국, 캐나다 등 22개 지역에서 CCTV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하여 유의도 측정을 한 결과, 11개는 의미있는 효과를, 5개는 무의미한 효과를 보였으며, 감시하는 장소와 상황에 따라 혼합적인 효과를 보였는데 주차장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는 분명한 범죄감축 효과를 나타났다. 또한, 몇몇 연구들에서 일부는 모호한 수법적, 장소적 범죄전이(displacement of crime)를 보였으나 대부분 범죄의 전이는 거의 발생 하지 않았다. 오히려 긍정적인 파급효과로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은 인근 지역까지도 범죄가 경감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에 비해 범죄예방적 견해에 부정적인 입장도 존재한다. 현재 설치되고 있는 CCTV의 범죄억제 효과는 있어도 그 효과가 지속적이지 못하다고 한다. 단지 발생한 범죄에 대해 다양한 단서를 확보할 수 있는 쉬운 수단이 될 뿐이라고 한다. 그것은 CCTV가 단기적으로만 범죄억제 효과를 갖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의식하고 행동을 억제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 기껏해야 1주일 정도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사람들은 대개 CCTV가 설치되었다는 것에 개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흥미롭게도 많은 범죄행위는 충동적으로 발생한다. 범죄가 우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CCTV의 설치가 범죄행위 억제에 지속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결과로서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다.[14]

14) 박동균, CCTV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분석을 통한 대학 캠퍼스에서의 활용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2006년

(2) 대학생들의 인식

앞서 본 대전 시내 대학생들의 CCTV 설치에 대한 견해는 찬성의견이 압도적이다. 대학생들에게 “대학내 CCTV를 접했을 때의 느낌은 어떻습니까?”로 질문하였는데,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답한 학생들이 48%에 이르고 있다.[15] 또한 "CCTV가 대학 내에서의 범죄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해 학생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이 반수를 넘고 있다(59%).[16]

현대 매스컴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여서 학생들도 커져가는 범죄규모와 형태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하지만 CCTV가 가지는 인권침해적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3) 대학내 CCTV설치의 전제조건

대학내 CCTV 설치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사생활침해 또는 감시당한다는 불쾌감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특히 도서관에서의 불필요한 녹화는 학생들의 인격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될 것이다. CCTV의 설치보다는 범죄환경을 막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도서관의 자리를 보다 여유있게 만들어 공부하는 학생들 상호간에 충분한 공간을 부여함으로써 범죄자들의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선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캠퍼스의 분위기를 보다 밝게 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강화하는 데 치중해야 할 것이다.

3. 지문 등 생체정보 수집의 인권법적 문제

(1) 생체정보의 활용

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399면.

15)

문15	빈도	퍼센트
매우불쾌	39	13.0
거부감	66	22.0
신경안씀	144	48.0
안심	23	7.7
기분좋음	28	9.3
합계	300	100.0

16)

문17	빈도	퍼센트
효과가전혀없다	26	8.7
약간효과	117	39.0
모르겠다	87	29.0
패효과있음	62	20.7
효과매우크다	8	2.7
합계	300	100.0

생체정보(biometric information)란 사람의 고유한 신체적·행동적 특징을 이용하여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정보로서, 지문·서명·정맥 패턴·얼굴형태·음성·홍채·유전자 등 개인을 직접 나타내는 정보를 말한다.[17] 생체정보는 우선 한번 유출되면 이를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개인정보와 다르다. 생체정보는 개인마다 신체적·행동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결합되어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므로 유출되면 그 자체가 개인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인권침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생체정보의 침해는 유전자정보, 홍체, 얼굴형태, 지문 등에 관계된 것으로 다방면의 악의적 이용이 우려된다.

(2) 기숙사 식당 이용 시 손혈관 인식 시스템사용

설문의 결과 대전의 일부대학에서 식당 이용 시 손혈관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그 도입의 필요성에 질문을 했지만, 의외로 학생들의 반응은 무감각한 편이었다. 잘 모른다고 답한 학생이 30%나 되었다.[18]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생활에서의 생체정보이용이 이미 대학 내에서도 그 활용이 구체화되고 있다.

(3) 생체정보활용의 문제점과 한계

국가를 통한 생체정보이용은 헌법이 요구하는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헌법적 한계를 지닌다. 즉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국가의 개인사생활권에 대한 제약이 가능한 것이다.

국가가 생체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준수해서 우선 이에 관한 근거법률이 존재해야 한다. 즉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해서만 생체정보 활용의 정당성이 발견된다. 다만 여기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전자화하는 근거법률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곧 정보수집의 근거법률이 될 수는 없다.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국가의 목적이 분명하여야 하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특정목적을 표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법률에 따라 생체정보의 전산화를 하는 목적 이외의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은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

17) 김일환, 생체인식기술 등 첨단정보보호기술의 이용촉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연구,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4, 9면; 김일환, 독일의 생체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18권 제1호, 2006, 1면.

18)

문19	빈도	퍼센트
적극활용	19	6.3
효율적이므로도입	91	30.3
관심없음	89	29.7
필요성못느낌	84	28.0
절대도입반대	17	5.7
합계	300	100.0

우 국가는 별도의 입법을 거쳐 또 다른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이러한 법적근거가 비례성원칙 특히 규범명확성원칙과 목적구속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해당주체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 및 감독기구를 통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고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19]

(4) 대학내 손혈관 시스템 도입의 전제조건

사생활을 제한하는 대학 내의 손혈관 시스템의 도입은 인권법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학칙내의 근거조항들이 전제되어야 하겠다. 또한 학칙을 위임받아 제정되는 지침들 속에 이러한 손혈관시스템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절차와 거부자들에 대한 인권적 배려 등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Ⅷ. 대학 내 인권 보호 대안 찾기 - 결론

1. 정보인권에 대한 의식향상 프로그램의 필요성

대학 내 정보기술활용에 대한 설문조사는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준다고 본다. 스마트카드에 대한 설문은 많은 학생들이 정보기술활용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학생들은 다분히 현재의 효율성을 만족하기 위해 정보기술의 활용에 찬성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이 비록 학생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스마트카드를 사용하게 하더라도 그것에 순응하여 무비판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설문조사는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인권법적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즉 대학 내에서의 정보인권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정보인권침해에 대한 민감성이 대학 내에서 형성되어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설문결과는 대학생들이 향후 사회인이 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어, 이들이 나중에 정보사회가 점차 정보독점사회로 변하는 시점에 있어 이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정보인권의 중요성 홍보와 응용력을 대학 내의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대학은 이러한 설문결과를 중심으로 향후 정보인권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기술사회에서 요구되는 정보기술활용에 대한 합리적인 공감대형성을 위해 올바른 정보기술사용의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토론하고 평가하는 비판적 사고가 요구된다고 본다. 이러한 노력은 구체적은 대학정책의 한 부분으로 정착되지 않고서는 힘든 일이며, 스마트카드에 대한 설문조사에

19) 김일환, 국가를 통한 생체정보의 이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방법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2004, 250면.

서 보이듯이 대학의 강제적 스마트카드의 사용권유는 미래의 소비자에게 잘못된 경제생활과 인권 비하적 생활태도를 만들 수 있다. 대학은 이러한 오류를 수정하고 대학 내의 올바른 정보인권보호의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 대학내 정보기술 활용지침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1) 정보기술 활용지침 제정의 필요성

대학은 대학자치의 주체이며, 학칙보다 상위법적인 지위를 갖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동하지만 구성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는 스스로 그 재량 내에서 취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학의 특수한 지위는 헌법적 정당성을 지닌다. 대학은 학문연구와 학교운영의 자치를 헌법에서 직접 받고 있으므로 대학 내의 정보인권향상을 위한 제규정을 만드는 작업은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자율적인 권한에 속한다. 그러므로 대학은 스마트카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보이는 정보인권 향상의 필요성에 동조하여 대학 내의 정보기술 활용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대학 내 쉽게 침해될 수 있는 정보기술, 즉 스마트카드, CCTV, 생체정보인식시스템의 활용에 있어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집적을 피하고,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정보기술 활용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과이다.

(2) 외국에서의 정보인권보호의 일반원칙과 지침의 기본방향

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기본권보호의 일반원칙을 두고 있어 참고 할만하다. 첫째, 정부기관이 어떠한 개인정보를 수집, 유지, 사용, 전파할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는 각 개인에게 있다. 둘째, 정부기관은 개인의 동의없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셋째, 개인은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 일부나 전부의 복사본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원칙은 이른바 'OECD가이드라인의 8원칙'이다. 이는 OECD가 전문가그룹의 작업 결과를 기초로 1980. 9. 23. 「프라이버시보호와 개인 데이터의 국제유통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 권고」를 말하며, 이 가이드라인은 세계 각국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입법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8원칙의 첫번째는 수집제한의 원칙(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이다. 개인 데이터의 수집은 제한되어야 하고 그러한 자료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수단에 의하여 그리고 데이터주체의 인지나 동의에 의하여 수집되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둘째는 데이터내용의 원칙(Data Quality Principle)으로, 개인 데이터는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그 목적에 필요한 정도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의 원칙은 목적구체화의 원칙(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으로, 개인 데이터의 수집목적은 수집할 당시에 구체화되어 있어야 하고, 그 후의 이용은 구체화된 목적의 실현 또는 수집목적과 모순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또한 개개의 목적변경은 정당화된 다른 목적에 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넷째 원칙은 이용제한의 원칙이다(Use Limitation principle). 개인데이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와 데이터 주체가 동의하는 경우외에는 목적외로 공개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다. 그리고 나머지 원칙은 안전성 확보의 원칙, 공개의 원칙, 개인참여의 원칙, 책임의 원칙 등이다.

대학내에서도 이러한 원칙들을 준수하여 학내에서의 정보기술활용의 지침의 작성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정보기술활용에 있어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자 료 】

강경근, 주민등록과 전산화 그리고 프라이버시, 『아·태공법연구』 제4집, 1997.

강경근, 정보보호의 헌법규범적 접근과 전망, 『공법학연구』제6권 제2호, 2005.

고시면,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CCTV 시스템 운용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17호. 치안연구소, 200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권헌영,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연세법학연구』 제12집 제1권, 2005.

김성권, 「감시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 보호 연구-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승환, 열손가락 지문 강제날인 제도와 관련한 쟁점들, 『민주법학』 28호, 2005.

김일환,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29집 3호, 2001.

김종철,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인터넷법률』 제4호, 2001.

김주환, “디지털시대의 개인정보보호와 사민권”, 『인터넷법률』 제4호, 2001.

명재진, “기본권의 본질”, 『헌법판례연구』 제2집, 2000.

박동균, CCTV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분석을 통한 대학 캠퍼스에서의 활용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지방정부학회, 206.

이호룡,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동향”, 『인터넷법률』 제8호, 2001.

이희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 『연세법학연구』, 2004.

이인호, “주민등록번호·지문날인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법률』 제8호, 2001.

전광석, “법률유보의 문제와 위임입법의 한계”, 공법연구』, 제26집 제3호, 1998.

정상기/명재진, 생명과학기술의 응용과 기본권보호적 한계, 집문당, 2003.

정영화,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및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인터넷법연구』 제1호, 2002.

정영화, “생성되고 있는 정보기본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세계헌법연구』 제7호, 2003.

정영화, “사이버스페이스와 프라이버시권”, 『헌법학연구』 제6권 제3호, 2000.

정준현, “전자네트워크사회의 개인정보보호”, 『인터넷법연구』 제2호, 2003.

정준현, “정보자기결정권과 그 행사”, 『인터넷법연구』 제2호, 2003.

표창원(), 범죄지역 공공장소 설치 범죄예방용 CCTV의 필요성과 인권적 함의.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2003.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9.